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7·8월호



순교의 피는 교회의 꽃이라던가

흑암이 깊은 위에 빛이 창조되었고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고
 박해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었고
 순교자들은 극형 아래서 천국의 소유자가 되었으니
 순교의 피는 교회의 꽃이라던가!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니, 범죄한 낙원은 지옥이요, 천국은 우리 속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범죄하는 심령은 뱀의 심령이요, 범죄하는 자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고 이래로 자진해서 나는 이단이요 하는 자 없었고, 스스로 신앙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도 보기 드물었으나, 박해를 통해, 연단을 통하여 나타났으니, 터진 입, 열린 목구멍으로야 정통아니고 보수아니고 참 신앙자가 아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우가 둔갑을 해도 꼬리는 못 감춘다는 속담이 있듯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말을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많은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 8.15해방을 맞이하고, 선교100주년을 눈 앞에 둔 한국교회 - 그러나 38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의 신사참배 문제 못지 않게 이단·사설이 우후죽순 같고, 갑작스런 경제부흥에 흥청되는 한국의 현실에 대해 『포만안일에는 음란과 사치가 나출하되, 기한곤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다고 하신 산돌 손양원 목사님(순교자)의 지적은 오늘을 지적하신 경계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번 달의 「십계명 강해」를 끝까지 읽어보면, 통일교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고등수법을 쓰기까지 하고 있을 때, 교회는 신령한 눈을 뜨고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하고 양들을 바로 지키기 위해 눈을 크게 떠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눈물, 네 눈물, 내 땀 네 땀이 서로 화합되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지금과 같이,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천국일꾼양성·민족복음화·북한선교·해외선교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살피고
 입있는 자는 전하고, 뜻 있는 자는 일어나라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이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 7-8 월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30일 창간 제11권 제7호 통권112호

1983년 7·8월(합본)호 차례

○권두언/순교의 피는 교회의 꽃이라든가	부 장 · 2
○이달의 말씀/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삼시다	당회장 · 4
☐특집 I / 8. 15의 교회사적 의의	이만열 · 6
☐특집 II / 여가선용을 이렇게	조해수 · 9
☐특집 III / 북한선교의 지름길	조준상 · 12
○찬송가 감상/모든 것을 주를 위해	김창근 · 15
○지상 특강/찬미하며 일을 합시다	이성근 · 16
○특별 연재③/새성전 이사에 즈음하여	최 환 · 20
○이달의 시/폭풍우 뒤에	하이렌 · 레티로 · 23
●이사야서 강해⑩/이사야 선지자가 본 제사	김창인 · 24
●십계명 강해/제8, 9, 10계명	이종운 · 27
☐교사일기	이성은 · 32
☐신앙간증/참 교사	Lim O. M · 35
☐지상제언/찬송가의 갈 길	최모세 · 37
○휘튼대회	세계선교회 · 38
○지나치게 커져버린 나	23
○신간안내/에베소서 사경	26
○일사일언	33
○신앙일고 · 그루터기	36
○개혁교회 소개	40
○신앙수상/잠이 안올 때	42
○선교사·선교지 소식	44
○독자제언	43
○저는 어린이입니다	46
○정정란	46
○교회소식	47
○교우동정	49
○8월행사 · 편집후기	50



표지해설

초대교회 일꾼집사 중의 하나인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을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 56)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삽시다

베드로후서
3장8~13

하나님의 계산법! 사람은 천년으로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하루로 계산하여 답을 주시고, 우리는 하루라고 내뱉는데 하나님은 천년이라고 대답을 하시니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떠합니까?

1. 창조의 계산법입니다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 「있으라」하시는 창조의 계산법이고 인간의 계산법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며 얼마가 남겠느냐' 하며 눈에 보이는 수입에 근거하여 따지는 계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벧세다 광야에서 종일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에 심령의 배가 불렀읍니다. 그러나 어느덧 해는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읍니다.

"예수님, 때는 저물고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이 종일 굶고 앉았는데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동네로 보내셔야지 어떻게 하시렵니까?"

"음 그렇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먹여 보내라"

"아니 선생님, 여기는 광야라 떡집도 없구요, 떡집이 있어도 살 돈도 없읍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산법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

"우리에게는 여기 한 어린아이가 가진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그래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받으시고는

"이 사람들을 오십명씩 질서 있게 앉혀라"

하시고는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이리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찼읍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계산법은 창조의 계산법인데 하나님은 정성을 바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창조의 계산법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아는 신자는 하나님이 '너 이것 해라' 명령하실 때에 '그걸 어떻게 해요?' 하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을 믿고 내 생명과 재산 전부를 바치면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적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물쭈물하면서 기회를 다 놓치고 실패하여 원수에게 망신 당하고 맙니다. 충현교회 성도들이여 인간의 계산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대로 북한선교를 하고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천국 일군을 키우고 새성전을 지읍시다. 「있으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2. 사람의 계산법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죄만 쌓아놓던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갈 마음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했으나 하나님은 도망가던 요나를 붙들어 혼을 내고 또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이제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사랑없는 전도요 저주의 선포였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가슴을 치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임금도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하나님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하게 된 원인은 백성의 죄가 아니라 이 놈의 죄로소이다”

지도자가 책임지는 회개를 합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사흘동안 물 한 모금 대지 않고 울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멸망시킬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300년 범한 죄를 사흘 금식으로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의 계산법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계산법입니다.

인간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30년 신세를 지고도 한번만 억울함을 당하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좀스러운 계산법입니다.

여러분이여 인간의 계산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해 줄 마음이 생깁니다.



김 창인 목사
(충현교회 당회장)

3. 신령한 계산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이 현금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데 큰 현금통을 놓고 줄을 서서 한사람씩 차례로 썰렁썰렁 넣습니다. 백만원짜리 수표 하나를 넣으면 간단하겠는데 천원짜리로 바꾸어서 한참 동안 넣습니다. “야 많이도 바친다!” 자 이렇게 제각기 현금들을 하고 많이 바친 사람은 뽐냅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패진 돈 엽전 두 푼을 드렸습니다. “웃도 너절하지만 현금도 켜켜하게 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현금 바치는 모습을 다 보시고 난 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눅 21:3)

“저희는 쓰고 남은 가운데서도 일부분만 바쳤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무슨 계산법입니까? 인간의 계산법은 눈에 보이는 액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중심을 꿰어 보시는 신령한 계산법입니다.

현금을 얼마를 바치든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얼마나 쏟았는지가 문제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계산법대로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계산법!

사람은 얼마든지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계산법 앞에는 별 수 없이 드러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계산법이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산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의 계산법, 사랑의 계산법, 신령한 계산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사참배는 양심의 문제이나... 또 나는 회개했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고 하는 하
 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심정에 대해서는, 내려지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진정한 회
 개는 성령의 열매로 알리라.

8. 15의 교회사적 의의

글 : 이 만열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새 545장, 1, 2절)

이 찬송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불리어진 때는,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 38년전 8.15 때가 아닌가 생각
 된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어둠던 이 땅이 밝아져
 서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변했기 때문이요, 매였
 던 종들이 돌아와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복
 이 만민에게 누리어질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쇠사슬에 얽매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선배들에게 8·15는 남다른 감회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8·15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다는 의미
 에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던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오스트리아·이태리와 동양권의 일본이 미
 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등의 소위 연합국가
 들을 상대로 일으켰던 이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선언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1910년 이래 만 35년간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
 된 한국도 해방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 조국을 잃
 은 슬픔 못지 않게 일제의 압박으로 괴로움을 당하
 고 있던 한민족에게 8·15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
 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유월절 그것과 같은 것이었
 다.

8·15의 환희는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일본의
 한국 통치가 너무 악랄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
 하여 더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8·15의 한국교회사적 의의
 를 살펴보면 8·15 직전의 한민족과 한국교회가
 일본의 반그리스도교적 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압박

을 받았으며, 만신창이가 되었던 한국교회의 형편
 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제의 한국통치는 세 시기로 구분된
 다. 1910년대의 무단통치시기, 1920년대의 소
 위 문화통치시기, 1930년대와 그 후의 민족말살통
 치시기이 그것이다.

일제는 전 시기를 통하여 한민족을 일본에 동화
 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의 원료공
 급지, 상품시장, 농산물 공급기지로 영구화하려 했
 다.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1년에 중일
 (中日)전쟁을 도발하여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면서 거기에 발맞춰 식민지 한국에 대한
 탄압과 착취를 극대화하였다. 민족말살정책이 감행
 되고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이 노골화되
 었다. 한국민에 대하여 내선(內鮮)일체, 황국신민
 화(皇國臣民化)의 노골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나왔
 다. 한국어, 한국문자의 사용이 금지되고, 한국사
 의 연구·교수가 중지되었으며, 한국 교유의 성명
 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는 소위 창씨개명(創氏改名)
 이 강요되었다. 전쟁이 확대되어 1941년 미국과의
 전쟁으로 발전하자 국민총동원령에 의한 각종 강제
 와 착취가 심해졌다. 징용·징병·정신대·공출제
 도가 강화되고, 언론·사상·문화의 검열이 심해
 졌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여러모로 시도되었으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神社參拜) 문제요, 그 후에 뒤따른
 몇몇 교단의 강제해산과 교단의 강제적 통합 또한
 일제 말기에 나타났던 악랄한 기독교 탄압정책이었
 다고 지적된다.

신사참배 문제는 몇 단계를 거쳐 기독교 탄압의
 구체적인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1918년에 완공
 되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 박해의 상
 정으로 변신할 줄 예견하지 못했다. 1931년 만주사
 변을 일으킨 일제가 군국주의화의 경향을 뚜렷이
 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각급학교에 대해 신사참배
 를 강요하게 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기독교계 학교

신사참배는 억지로 끌려가서 당했다하자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 소위 지도자의 할 짓처럼 생각되는 일이나? 성경은 얼마동안 배웠으며 얼마나 가르쳤느냐? 그것이 정통이나! 열매로 알리라!

에 대해서는 신사참배 여부가 학교존폐와 관계된다는 상황으로까지 몰아 붙이게 되었다. 여기서 그 자세한 경위까지 말할 여유가 없다.

그리하여 일제가 노렸던 바와 같이 천주교·감리교·안식교등의 교단이 일제와 타협하게 되었고, 미국 남북장로교 선교부에서 경영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들이 폐교하게 되었다. 이것이 일단계 탄압조치였다.

일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제 2 단계로 한국 최대의 교단인 장로교에 대해 마수를 뻗었다. 1938년 2월부터 전국 노회를 상대로 위협과 회유로 공작한 결과 그 해 9월 총회가 열리기까지 23개 노회 중 17개 노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 1938년 9월 9일에 개최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는 개회 이튿날 평양·평서·안주 노회의 삼노회를 대표했다는 박응률목사의 각본에 찬 제의에 따라 불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장로교사상 수치스러운 결의를 남기게 되었다.

“아등(我等: 우리)은 신사(神社)가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本意)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출선 여행(勳行: 힘써 행함)하고 추(追)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統後)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서 적성(赤誠: 참된 정성)을 다하기로 기(期)함”

대부분의 한국교회사에서는 이 결의가 일제의 강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후의 한국장로교회 지도자들이라는 분들이 저지른 실수들까지도 변명되는 것은 아니다. 결의하기까지가 문제였지, 결의가 통과된 후 그들은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측이 기대했던 이상의 소위 충성을 보여주었다. 9월 10일 총회 부회장 김길창의 인솔 하에 23개 노회장이 평양신사에 참배한 것을 비롯하여 신사참배의 정당성을 성서적으로 논증하려는 자세마저 나왔던 것이다. 선교사 중에서도 총회석상에서 그 결의를 축하하는 자도 있었다.

우리는 이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한국교회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배출되었음을 기억한다. 많은 지도자들이 투옥되었고, 그 중 50여명이 순교하였으며 8.15와 더불어 죽음 상태에서 살아나온 자가 20여명이었다. 8.15까지 체포·투옥된 신자들이 2천여명, 폐쇄된 교회가 2백여개에 달하였다. 한국교회는 이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형국의 시련에서 후세가 본받을 수 있는 참 성도들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일제의 박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침례교단과 성결교단은 그들의 강렬한 재림사상 때문에 교단해체의 박해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총회를 비롯한 중요한 행사에는 먼저 시국강연이 있어야 했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교단에서는 국방헌금 및 군수물자 헌납에 예하 교회들을 동원해야 했으며, 단계적으로 구약성서가 폐지되고 신약성서의 경우도 4복음 이외에는 용납되지 않게 되었다. ‘기독교황도선양연맹(皇道宣揚聯盟)’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全鮮思想報國聯盟)’ 등 기관들이 조직되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용화되었다. 1942년 3월에는 조선혁신교단(朝鮮革新教團)이 조직되어 일시적으로나마 전 필순목사가 의장에 있었으나, 장로교 세력의 탈퇴로 그 교단은 조선감리교단(朝鮮監理教團)으로 변모되었다. 1943년 5월에는 장로교단이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日本基督教朝鮮長老教團)으로 개칭하고 초대 총리(統理)에 채필근이 당선되었다. 이는 “조선예수교 장로회도 그 교의(教義)·신학(神學)·성서해석·교회조직및 의식습관 등에 있어서 종래의 사상 태도를 일체 청산하고 순일본식 기독교로서 신생(新生)키로 기약(期約)하고 조선예수교장로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한데서 이와 같은 명칭까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장로교단마저 완전히 일제의 주구노릇을 하게 된 것이다.

일제는 그것도 부족하였음인지, 1945년 8월 1일에는 이미 있던 장로교단과 감리교단 등을 해체시키고 일본기독교조선교단(日本基督教朝鮮教團)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장로교·감리교·구세군 대표 등이 참가하였고 총지휘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근등(近藤)이 참모역할은 오 문환(吳文煥)이 했으며 초대 총리에는 장로교의 김관식(金觀植)이 총독 부로부터 임명받아 취임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기독교는 일본의 군국주의·침략주의의 종교어용단체화하게 되었고, 초기에 가졌던 순수한 신앙은 물론

좌우간 일제시대에든 시대이론에 속았으니 시대이론에 속지 마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한 50여명 순교자의 피 값으로 무혈로 8·15해방을 주셨읍니다.

민족주의의 보루로서의 면모도 살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때 70여만명에 이르렀던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그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놀라운 것은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신앙적 지조를 버리고 일제의 반기독교적 정책에 순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8월 18일을 기해서 부역자를 포함한 여러 교파의 지도자들을 범주적으로 살해할 음모를 꾸며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적그리스도적 자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일제의 멸망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8·15는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에서 주어졌던 것이다. 그것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한없는 긍휼과 은총으로 차라리 한국교회를 순교자의 피 위에서 다시 세우려는 기회였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신음하던 히브리민족이 저 해방의 유월절을 맞이했듯이 8·15를 맞이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그 때 하나님께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상숭배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신앙의 절조를 잃어 창녀처럼 되었으며 하나님보다 일본의 현인신(現人神)의 명령을 두려워한, 그리하여 집에 떠난 탕자와 같이 자기의 그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한국 기독교회가 8·15를 맞아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했을까? 그것은 니스웨 사람들과 같이 재를 무릎쓰고 통회 자복하는 겸손한 길이어야 했다. 그것은 바알 세사강들을 청산한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어야 했다. 한국교회의 범죄가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제 그 강압에 제겨된 상황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가져온 실수와 죄과에 대하여 솔직하여야 했다. 지도자가 지도자 구실을 잘못한데 대하여 철저한 자기 반성이 주어져야 했고, 일반 평신도 또한 겸손하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로 돕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했다.

그리고 8. 15의 해방과 자유는 새땅 가나안을 향한 첫 출발의 의의를 갖는 것이지 자만과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아야 했다. 가나안으로의 새 출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40여년간 광야의 시련 속에서 단련한 모세를 준비하셨듯이 이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옥중에서 단련한 많은 옥중성도들을 준비하셨던 것이다. 한국교회는 회개

와 순결을 외치던 저들의 간곡한 호소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국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는데 힘을 뭉쳤어야 했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의 기회로 주신 8·15를 선용하지 못했다. 회개와 순결, 새가나안을 향한 소망에 뜻을 두지 못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변명하기에 급급했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털어놓는 자세가 아니라 인간의 눈가림을 위해 갖은 재주를 피우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회개를 외치는 목소리는 교계에서 밀려나고 변명의 소리, 눈가림의 수작이 득세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하여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한국교회의 회개운동이 실패하게 되었고, 민족사적으로 말한다면 교회 내의 일제잔재를 청산하자는 운동이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비극이자 우리 민족의 비극이기도 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저러한 제2의 실수가 저절러지고 있었던 당시에, 민족의 분단이 이루어져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또 우리 남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일제의 식민지적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릴 정도로 사회에 일제의 잔재가 온존(溫存)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같이 느껴진다. 거기에서 해방 후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운동이 문제되고 있을 때, 6. 25의 민족적 비극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교회는 과거의 범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고, 그 회개를 외치는 소리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배척되어졌다는 사실이다. 가나안예로의 출발을 의미했던 유월절이 그들의 종되었던 애굽에서의 안주 내지는 애굽예로의 복귀를 의미하였던 셈이다. 한국교회의 회개와 새 출발을 의미했던 8·15가 한국교회를 위한 진정한 회개의 기회가 되지 못했으므로, 우리 민족사의 오늘날까지의 숙제인 일제의 식민지잔재청산문제와 민족분단의 비극이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오늘날도 분열되어 가고 있는 교단들의 책분열과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리적 현상들의 대부분이 저 8·15에 가졌어야 할 회개운동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8·15 38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여가선용을 이렇게

글: 조 해수 목사

(청암교회 담임목사)
(총신신학대학원 강사)

요즘 구미 여러 나라에서는 여가에 관한 새로운 연구와 이해의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이유는 현대 기술과학의 영향이 일상생활 가운데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반면에 여가의 할당을 더 많이 늘어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조국근대화의 슬로건 아래 조국의 발전을 위해 일치단결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도 눈부신 발전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생활은 좀더 나아졌고 따라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과학기술 문명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여가를 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아직도 고도로 발달된 기계화 사회에 살고 있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세계사의 추세는 기계화를 통한 대중의 대량 여가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고 우리에게도 멀지 않아 여가가 하나의 큰 문제로 찾아올 것만은 확실하다고 본다.

1. 여가란 무엇인가

19세기의 이론가들도 여가의 출현에 대하여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그 애매한 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막스」는 여가를 '자유로운 일을 하는 시간' 「콘트」는 '대중 천문학'의 발달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했고 「앵겔스」는 사회화의 유익한 일에 참가하는 충분한 자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 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고만 하였다. 랫트레사전(1869년판)을 보면 여가는 '업무를 떠나서 각자가 자유롭게 되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1930년에 「오제(Augé)」가 편집한 사전에는 '정규의 업무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오락이나 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붙이게 되었다. 「랫트레」에서는 시간으로 되어있던 것이 '오락이나 일'로 바뀌었고 오제의 경우 여가는 단순한 일을 떠난 후가 아니라 정규의 일상업무를 떠난 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여가를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여가란 일하지 않는 시간, 남는 시간, 자유 시간을 여가라 할 수 있겠는가? 어떤이는 생계를 위해 사용되지 않은 시간은 모두 여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업자의 시간이 여가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자기의 직무와 의무를 수행한 나머지 시간을 여가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자유로운 시간이 좋은 여가 생활을 위한 시간은 될 수 있지만 뜻없는 시간 허무한 시간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헛되게 보내는 시간을 여가와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즐긴 사람은 적었다. 오늘의 문제는 많은 사람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도 여가 생활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초점은 시간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있다. 여가 생활은 시간적인 여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여가는 사람이 자기 시간의 일부를 자기 가 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가 시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헬라어 *scale*(스콜레)와 라틴어 *scola*(스콜라)는 학교(*school*)라는 말의 어원으로 본래는 여가를 뜻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의 목적은 지혜로운 여가 사용에 있다고 말했다. 여가라는 말의 영어는 *leisure*(레저)이고 그 말은 불어 *loisir*(루와지르)에서 온 것으로 '한가하다' 또는 '자유롭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국민이 그들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가 퇴폐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여가의 세 가지 기능

(1) 휴식-휴식은 피로를 회복시킨다. 일상 생활이나 특히 근로에 시달리던 육체적 정신적인 소모를 다시 충전시키고 회복시킨다. 생산공정의 복잡화, 대도시 지역 통근거리의 장거리화, 복잡한 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마태 11:28~29)

간관계, 업무의 중압감등이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바이즈박사(P. R. Dr Bize)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기업의 최고 경영자 중 85%가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2) 기분전환—휴식이 인간을 피로에서 회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분전환은 인간을 권태로부터 구출하는 역할을 한다. 세분화된 단조로운 작업은 인간의 인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인의 정신병은 지나친 심리적 강조내지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기분전환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3) 자기개발기능—학교 교육을 받았지만 끊임없는 사회의 변동과 진보, 자칫 방심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기 쉬운 지식을 여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자유로이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복잡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대도시인들 에게는 조용히 여유있게 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채 명상하면서 자기를 다시 발견하는 기회가 필요하다(예: 광야의 모세). 뿐만 아니라 자기의 평소 직무에서 벗어나 더욱 여가의 개발적 기능이 나타난다고 본다.

3. 여가의 중요성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 2:1, 2)

하나님에게는 과로도 없으시고 피곤도 없으시지만 창조의 역사를 다 이루신 후 안식하셨다(창 2:1~3). 또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창 3:17~19). 그러나 사람이 계속해서 일만 한다면 인간이 도저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통하여 안식할 것을 명령하셨다. 『제7일은 너의 하

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속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출 20:10).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종도 객도 쉬라고 하셨고 사람만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육속도 쉬게 하라 하셨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고(마 11:28),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날마다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먹을 겨를도 없음이라(막 10:30~31). 이것들은 순전히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쉬라고 하신 것이다. 기계도 계속 무리하게 사용하면 그 수명이 짧아진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휴식없이 일만 하고 전진만 한다면 능률이 제대로 오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이 될 것이다. 「막스」가 「노동력재생산」의 과정에서 여가를「휴식」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했던 시대에는 취업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율법이 없었다. 당시 윤리·정치학협회의 회원이었던 「비에르메(Villermé)」의 연구에 의하면 일일 취업시간(주6일제)은 평균 13시간이었다. 그 당시 1주간의 연 취업시간은 약 75시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약 45시간으로 단축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면 당시로서 30시간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든 셈이 된다. 미국의 경우 주5일 취업으로 대개 40시간 정도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 본 어떤 회사의 보고에 의하면 6일제보다 능률이 더욱 향상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의 경우 운전사들이 2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에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능좋은 고급 자동차라도 무리하면 고장나기 쉽고 사람도 쉬어야 사고율이 적다는 것이 컴퓨터의 대답이라고 한다. 성경에는 쉬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나와 있으나 오늘의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기술과학 사회의 대량성과 신속성 속에 사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여가를 선용할 것인가 그 실제적인 면을 생각하여 보자.

4. 여가선용의 실제적인 방안

그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매여있어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건전하고 조용한 기도원에 찾아가서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여 보고 고칠 바를 고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다시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여가 선용의 한 지혜이다.

우리나라 고유의 여가는 오늘날의 선진국가의 여가와와는 달리 정월 초하루부터 사흘까지를 지키는 「설놀이」 정월 대보름에 즐기는 「달맞이와 뿔놀이」 단오 때의 「줄당기기」 「그네뛰기」 「널뛰기」 음력 8월 추석 달밝은 밤에 곱게 차린 여자들이 이삼십 명씩 손을 잡고 달 모양으로 빙빙 돌면서 흥겹게 노는 「강강수월래」 등의 민속놀이는 남녀노소 구별없이 누구나 함께 참가하여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즐기기도 한다.

미국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 이동교회(Mobil Church)라는 것이 있어 여름철에 해변가로 물리는 군중들을 위해 특별 예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칫하면 탈선하기 쉬운 여가의 무질서에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참다운 여가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바캉스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또 젊은 남녀 학생들로 구성된 농어촌 봉사 활동으로 노동자들 틈에 끼여 노동도 하고 함께 즐기는 일체감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도 한다. 이런 일은 젊은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사는 장년층들에게 확대시켜도 좋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운전은 참 피곤하다. 그러나 차 안에서 쉬면 피로 회복이 늦다. 그러나 차 밖에 나와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푸른 잔디밭에 잠시 쉬어도 피로가 곧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여가는 평소애 매달리던 업무에서 떠나 잠시 다른 일에 정성을 쏟게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행을 하는 것이나 낯선 거리 가보지 못한 산천을 밟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이다. 여행은 고달픈 인생에서의 해방이다. 또 옛 고향 산천을 찾고 옛날 고향의 어른들을 찾아뵙고 자라나던 옛 교회들을 찾아보고 격려하고 도시의 여러가지 일들을 소개해 주는 것도 꼭 유익할 것이다. 정다운 옛 친구와 만나 부담없는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정신위생에 꼭 도움이 된다. 우정은 인생의 가장 고마운 선물 중의 하나다. 서로 믿고 아끼고 서로 해물없는 친구끼리 모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와 웃음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평소애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것이다. 워니워니해도 독서의 시간은 인생의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옛날의 뛰어난 어른들과 정신적으로 만나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다. 동서고금

의 훌륭한 인물들과 조용한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독서의 보람과 즐거움은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한다고 본다. 그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매여있어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건전하고 조용한 기도원에 찾아가서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하여 보고 고칠 바를 고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할 수 있는 것도 여가 선용의 한 지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이다. 동물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인간답게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인간다운 자유를 누릴 권리와 인간다운 행복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인간의 본연의 요구요 당연한 권리로 자연스러운 선언이다. 우리는 과연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상실과 인간실권의 병리를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발전과 더불어 인간은 너무나도 긴장된 생활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 긴장을 풀기 위해 여가생활은 현대의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여가생활이 너무나도 무쾌도하게 방종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품위있는 인간으로서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여름의 바캉스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창조적이고 신장생활에 유익하고 개인적인 새로운 가치관의 발전과 인격형성의 하나의 새로운 차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면 한다.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께로 부터 온다. 이 하나님을 떠날 때 불행은 찾아온다.

<뉴먼>

북한선교의 지름길



조 준상 목사

북한선교

전도특공대 지도

충현기도원 담임

「북한선교의 지름길」

북한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속한 것이요 또한 충현교회 5대 목표 중에 하나이다. 필자가 이 일에 참여하여 활동한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처음 2년 동안은 차량을 물고 전국의 산간벽지와 농어촌교회 300여 교회를 두루 찾아다니며 집회를 인도하고, 1년 동안은 전도 특공대원들에게 훈련및 성경공부에 전념하며 지내오게 되었다. 짧은 기간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그 동안의 경험에 의하여서 북한선교 성공에 대한 나름의 소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소견을 잠시 피력하여 보고자 한다.

북한선교의 효과적인 지름길은 크게 세 가지 운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민족복음화운동
- ② 영적부흥운동
- ③ 전도 특공대원 양성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원한의 휴전선은 반드시 복음으로 무너지는 날이 오고, 그래서 그토록 원하던 통일이 반드시 오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

첫째, 민족복음화운동에 대하여

우리의 적은 김 일성이기 전에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이다. 공산주의라는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와 싸워 이기려면 투철한 신앙, 즉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므로 북한선교가 성공하려면, 먼저 믿지 아니하는 내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당 회장 목사님이 이미 오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투철한 신앙과 복음으로만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성도

2천만명 이상이 어서 속히 확보된다면 통일은 성큼 당겨질 것이다.

「민족복음화」—이 귀중한 사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1) 교역자의 각성운동과 투철한 사명의식의 고취운동이 급선무이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곧 교역자의 문제요, 교역자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다. 그러므로 교역자부터 먼저 말씀에 의해 겸손해지고 바로 서서 성령충만을 받는 운동이 과감히 전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은 잘 정리된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서간 어떤 신학자의 이론을 터득했다고 되어지는 것만도 아니다. 그 배우고 익힌 학문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연습이 되어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과감히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목회자 경건훈련원」 코—스를 3년 정도로 하여 1년에 두번 정도 교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한번 교육에 2주 정도)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요, 또한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 신학공부 3년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 어려운 신학이론에만 시달리다가 제대로 경건훈련을 받지 못하고 강도사·목사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강단을 맡게 되니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목회자라는 권위의식만 가지고 목회하던 세대는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회자 경건훈련」 코—스를 하루빨리 실천에 옮기어 교역자들의 사명의식 고취와 각성과 회개운동이 활화산처럼 타올라야 하는 것이다. 특히 훈련코—스는 이론보다는 실기가 필요하다. 설교작성훈련, 기도훈련, 금식훈련, 심방 및 교회예식훈련 등 목회에 직접 필요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실시했을 때 큰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믿는다.

(2) 담임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와의 합숙훈련이 필요하다

교회 실무적인 일에 직접 몸담고 있는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고 성령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어 봉사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따로

따로 시키는 것보다 한 곳에 모여서 은혜받고 피차 위하여 도고의 기도를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전도특공대원 훈련 때에 이렇게 교역자와 평신도가 같이 참석하여 은혜받고 돌아간 교회에서 이러한 부흥을 가져간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감히 이런 제언을 하게 된 것이다.

(3) 농어촌교회 전도부흥집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충현교회와 북한선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일이지만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전담 강사를 선정하여 이를 위해 전적으로 활동하게 하되 부흥집회시에 이미 잘 훈련된 전도대원들까지 동시에 파송하여 그들로 하여금 맨투맨(일대일) 전도도 하게 하여 인도하도록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에는 어린이 계절학교를 지원하는 교사들을 파송하여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에게도 복음으로 구원하고 무장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4)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농어촌교회에 자립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자립, 경제자립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방향도 없고 밀도 끝도 없는 지원책이 될 것이다. 연차적으로 지원금을 줄여가며 자립하도록 자립정신을 길러주며 또한 말씀과 기도에도 신앙으로 심숙하기까지 인도해 주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교역자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성장하면 평신도 지도자와 화합의 관계와 협동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부흥집회 인도 등으로 질적 양적 성장을 가져온다면 민족복음화는 좀더 앞당겨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믿는다.

둘째, 영적 부흥운동이다

아무리 탁월한 이론과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신자요 죽은 교회이다. 그러므로 영적 부흥이 있어야 내 조국을 살리고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고 나아가서는 민족복음화의 북한선교와 세계선교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부흥운동」이란

(1) 기도운동이다

기도하는 자가 망하는 법이 없으며,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국가가 망하는 일이 없다. 자신과 교회와 민족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와 연합한 자신과 교회와 국가를 붙들어 달라는 도고의 기도를 드리는 이 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때에 이 민족도 살며 이북에 있는 내 동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생활에

서 해방되었고, 모세의 기도로 광야 40년 간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패일언하고 전능하신 보좌를 향하여, 울부짖는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가 지금이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채찍을 면할 길이 없다.

(2) 성령운동이다

전혀 기도에 힘써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약속하신 성령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말씀'하며 성령의 은사를 배격하는 무리이며 하나는 '은사, 은사'하며 말씀을 등한시 하는 것이다. 성령운동은 그 어떤 것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둘 다를 포함하는 운동이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인 성경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 분인 동시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 활동하려면 약속하신 성령충만을 받는데 온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성경지식이 한낱 이론만으로 끝나고, 강단에서만 외치는 설교로만 끝날 수밖에 없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한국 강단에 일어났지만 앞으로 좀더 이 불길이 더욱 힘차게 그리고 힘있게 퍼져 나가야만 한다.

(3) 성경의 진리탐구운동이다

성경말씀 뒤편침 없는 성령운동은 일시적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의 성경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진리의 말씀 탐구에 열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말씀과 체험도 좋지만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하여야 한다. 부분적인 성경공부를 전체인양 해서도 아니되고 전체적인 안목에서 포괄적으로도 공부하고 부분적인 것을 깊게도 연구하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전체적인 진리탐구운동이 일어날 때 큰 유익이 오며 건전한 영적운동이 계속 되리라 믿는다

(4) 전도운동이다

기도하여 능력받고 성령 충만받고 은사받고 말씀 공부하여 무장한 다음 영혼 구혼하는 구령운동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성경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면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므로, 전도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5) 찬양하는 운동이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

리가 목탁소리를 몰아내고 원망과 불평소리를 몰아내는 찬양하는 운동이 힘있게 일어나야 한다. 노래는 건강한 자만이 할 수 있다면 찬양은 영혼이 건강한 자라야 부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써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은혜로운 찬양, 영광스런 찬양, 힘있는 찬양을 계속 부를 때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이 완전히 물러가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이다.

이처럼 영적으로 살아나는 운동 즉 기도와 성령과 말씀과 전도와 찬양하는 일을 현재 북한선교 전도특공대에서는 집회 때마다(매주 월요일 오후 7:00) 하고 있다. 이렇게 영적인 건전한 운동이 전국에 반드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며 이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세째, 전도 특공대원 양성이다

민족복음화로 내실을 기하고 영적무장 운동으로 힘을 얻어, 보다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사역에 생명결고 나아가 공산주의와 싸울 수 있는 전도 특공대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미 전도 특공대 총사령관이신 김 창인목사님께서 10만명 양성계획을 말씀하신대로 복음들고 나갈 복음정예대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①투철한 복음전도 사명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

일찌기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하는 일사각오의 복음전도 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경 말씀과 성령충만함 없이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일은 성령받지 못한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읍니다”하고 옆구리에 칼을 차고 의기양양하게 나갈지라도, 그는 패잔병이 될 수 밖에 없다. 투철한 사명고취는 철저한 성경공부와 기도와 성령충만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 이 일을 위하여 전도특공대에서는 계속적인 성경공부와 기도훈련과 성령충만 받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어디서든지 복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일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인생은 어떠한 존재이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를 확실히 체계있게 암기하고 외워서 열 사람을 만나면 복음전도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그 이하의 사람을 만나면 맨투맨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전도대원으로 양성하는 일이다. 필요한 성경 구절을 반드시 암기하여야 하고 거기에는 개인적인 체험과 자기의 경험을 삽입시켜 자유자재

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이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1일 전도훈련을 지금 실시하는 중에 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이 일에 힘있는 손으로 붙들어 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③통일 전까지는 지교회에 유능한 전도대원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복음들고 가기 전에 먼저 지교회에서 안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족복음화에 앞장 서는 것이 전도특공대원이 할 일이다. 먼 미래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과 현재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전도하도록 하는데 양성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④북한선교회 지방 집회시 협력요원 내지 전도특공대 확장요원을 양성하는데 있다

민족복음화를 위한 지방 대집회시에 협력하고 기복제 역할을 하도록 활성화하는데 있다. 지방 조직을 할 때 구심 멤버가 되어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는데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도 특공대원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시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자로 양성하여 통일되기 전까지는 지교회에서 유능한 전도대원으로 그리고 북한선교 지방 집회시는 협력요원으로 그리고 통일이 될 때는 복음들고 생명결고 나아가갈 수 있는 특공대원으로 양육하는데 있다.

이런 정도 10만 명만 양성이 된다면 이 땅에는 공산주의가 발을 못 붙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총현교회의 5대 목표 중에 하나요 당회장 목사님이 불철주야 소원하며 기도하시는 제목이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초교파적으로 범국민적으로 이 사명을 받았다. 이것은 한낱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2천만 성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역자가 살아나야 하고 농어촌교회가 부흥하여야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되어진대로 구체적인 전도전략을 세워 치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범교파적으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기도운동과 성령운동과 말씀 공부운동과 그리고 전도와 찬양운동이 활화산처럼 불붙어야 한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신앙 무장을 하고 복음으로 무장한 전도 특공대원을 양성하여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복음으로 통일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All for Jesus)

—새찬송가 312장—

내 직속해 주신 주께 모든 힘을 바치며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



김 창근 목사
(예배위원장)

사랑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
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
내셨음이라」(요일 4:10)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전에 먼
저 나를 사랑하신 이 놀랍고 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
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
명이요」(마 22:37)라고 말씀하셨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요 14:21)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함이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순종함
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리
고 찬송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
라고 말씀하신다.

이 찬송은 어려서 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전생
애를 하나님께 바친 메리 제임스
(Mary D. James) 양이 쓴 찬송
시로써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
다.

1절에서 “주를 위해 모든 것
을 바친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주께 명

령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게 하
시고, 발은 주의 길로 달리게 하
시며, 눈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
시고, 입술은 주님만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 간구와 같은 삶을 원하는
이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
고 이 찬송을 불러 보게되며, 이
러한 삶을 살게될 때 나의 영혼
은 밝게 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을 바라보게 되며, 영광스런 왕
이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편히 쉬는 은총을 허
락해 주시는 것이다(4절).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이 세상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
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책임에
충성하며 인내하며 헌신하는 성
도들이 되길 원한다.

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백두
산 소나무 짙어 무너졌던 성전 다시 건축하고 압록
강 수풍발전소 전등불 밝혀놓고 할렐루야 찬송하는
시온의 계절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성도들은 북한선교의 일을 각기 맡

겨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
서서 봉사하고, 앞장서서 물질 투자하여 선한 사업
에 능력있는 일군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말리니—할렐루
야 아멘—

찬미하며 일을 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엡 5 : 19~20)



이 성근 목사

(1) 어떤 종류의 찬미를 부르며 일을 해야 합니까

노래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 세속적인 노래와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성도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노래도 세가지로 그 종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성도가 불신자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복음송이라고 합니다.
- ② 성도가 성도에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성가 또는 부흥성가라고 합니다.
- ③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찬송가 혹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러 영광돌리는 신령한 노래로 끝에는 반드시 아멘을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찬송가는 이것이 조금 미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짚어는 예배시간을 위해 조직된 찬양대를 성가대라고 해서는 안되며, 또한 원칙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2) 어떻게 찬미를 부르면서 일해야 합니까

- ① 서로 화답하면서 찬미를 불러야 합니다

『...서로 화답하며...』(엡 5 : 19)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는 한 피로 구원 얻은 감격을 폭발시켜 형제애를 강화 시킵니다.

그러므로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마음의 장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벌써 성도의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미는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면 마음이 뭉쳐집니다. 친절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때마다 찬미를 많이 불러야 합니다.

대중집회 일수록 박수를 치며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이런 집회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설교를 할 분위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찬송을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불러서 심령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대중 집회시에는 찬송을 힘차게 불러 서로 마음을 묶어 놓아야 합니다.

↓ 어떻게 찬미를 부르면서 일해야 합니까
첫째로, 서로 화답하면서 찬미를 불러야 합니다.
둘째로,

- ② 마음으로 찬미를 불러야 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엡 5 : 19)

찬송은 입술로 불러야 합니까,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까? 예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여러분! 입술의 찬송은 가수도 불러요, TV에서 음탕한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성탄절을 앞두고 케를송을 부르더군요, 그것은 입술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비록 곡이 조금 맞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③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미를 불러야 합니다

『법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엡 5:20)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처럼 찬양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기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처럼(요 14:13) 찬양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것 외에는 사람으로부터 찬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죄인이었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이름이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 유대교, 통일교가 합동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 찬미를 부르면서 일을 하자는 문제에서

- 첫째로, 찬미의 종류
- 둘째로, 찬미를 부르는 법은 :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셋째로,

(3) 찬송을 부르며 일을 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① 찬송은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찬송을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 유혹을 이깁니다.

●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욕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음탕한 생각

이 싹틀 수가 없어요.

●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살기가 등등하지를 않아요.

헬라의 신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라 나라는 그 해안에 여러 섬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 여러 섬들 가운데 싸이렌이라고 하는 섬에는 여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선부들이 배를 타고 그 섬 옆으로 지나가노라면 그 여자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 선부들을 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고 섬에 내려다가는 가졌던 돈을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알거지가 되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부들은 언제나 그 섬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너무 두려워서 절대로 섬에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는 밧줄로 몸뚱이를 배에다 단단히 붙들어 매고 그 섬 옆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도 정작 바닷가에 이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보고 듣게 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매었던 밧줄을 풀고 또 내려서는 훌쩍 망하는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은 당시 헬라의 유명한 음악가 올빼오스라는 사람이 배에 같이 타고 그 섬 옆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 올빼오스라는 음악가가 거문고를 한 손에 들고 타면서 그 좋은 노래를 부르니까 배에 타고 있던 선부들이 모두 그 노래에 도취 되어서 그 섬 옆을 지나면서도 이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컷둥으로도 안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사히 잘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달리 영물이라는 특성의 하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시입니다. 시는 가장 아름다운 사상을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시를 더욱 아름답고 위대하게 한 것이 여기에 곡조를 붙인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노래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 노래의 위력이 잘못 사용되면 민족과 세계를 파멸로 몰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의 군가를 보세요, 전의에 불타는 군가를 부르게 했을 때에 싸움을 하고 싶은 충동을 받아 무모한 2차대전을 일으켜 한때 세계를 전쟁터로 만들고 자국은 폐허가 되고 말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요사이 가요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보통 때는 멀쩡하던 사람들이 무대에 나가 마이크만 잡고 노래를 불렀다 하면 성적인 자극을 주어 음풍을 폭 발시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가요, 즉 유행가라는 세상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죄악과 연결시켜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노래가 있을 때에 세상의 음탕한 노래가 아무리 크게 들려와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퇴폐한 유행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그 마음 속에 시온의 노래가 없는 까닭입니다.

●왜 빠나 댄스홀 같은 곳을 기웃거리게 됩니까? 그 심령속에 거룩한 노래가 없는 까닭입니다.

●왜 범죄를 합니까? 마음의 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술에 빠져 방탕을 합니까? 마음의 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노래로 가득 찬 마음을 유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엡 5:19~21).

♪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와 기쁨도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르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새 496)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② 찬송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가. 찬송은 가정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 계시록을 120분에 전부 암송하던 평양신학교 출신으로 부흥사였던 박윤호 전도사는 평양 신현교회 부흥회시에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번은 어떤 가정에 심방을 갔읍니다. 그 가정에는 도무지 가정 예배라곤 없었던 모양이고, 때때로 했다는 것은 싸움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밖에서 큰 일이 생겼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그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졸던 개가 그만 놀라 야단 야단이 났다고 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찬송이 끝나도 그치지 않고 그냥 짖어댔읍니다.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 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어려웠읍

니다.

기도가 끝나자 그 집에 있는 열 두어살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 나갔읍니다. 모두 무슨 일을 하려나 하고 주의해 보았는데 그 아이는 나가자마자 짖어대는 개의 등어리를 발로 걷어차면서 하는 말이

“이 덜된 개새끼야 오늘도 울 엄마 아빠가 또 싸우는 줄 아니?”

하고는 눈을 흘기는 것이었습니다.

개는 더 큰 일이 난 것처럼 야단을 치는데 사내애는 다시 한번 더 걸어차며

“이 미물아? 이번은 썸하는게 아냐”

하고 소리를 질렀읍니다. 개는 그때에야 알았는지 아픔의 소리를 “개깽 개깽” 지르며 어디론지 나가 버렸읍니다.

박 전도사는 이 말을 끝내고 나서 “현대 교인들의 가정에 찬송이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은 싸움 뿐일 수 밖에 없으니, 이것이 큰 일이 아닙니까?”라고 말하였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찬송을 통하여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 찬송은 마음에 평온을 줍니다

영국의 대 정치가 글래드스톤(Gladstone, W. Ewart)은 어떤 날 의회에서 반대당의 공격 연설이 맹렬함에도 불구하고 태연히 무엇인가를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반박문을 기록하고 있려니 생각하여 곁에 앉은 사람이 넘겨다 보니 반박문이 아니라 <만세만석>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글래드스톤의 이 역문은 오늘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맹렬한 정치 싸움 한가운데서도 이 찬송만 생각하면 반석에 선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졌기 때문입니다.

♪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 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받지 못하네
쉬임없이 힘쓰고 눈물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악을 예수홀로 속하네(새 229)

찬송은 마음에 평온을 주는 최대의 방법입니다(엡 5:19).

다. 찬송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주어 태연할 수 있습니다.

1866년 런던(London)호가 비스케이(Biscay)만에서 파선했을 때 비참한 조난자들은 살길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따라 부르기 시작하여, 최후 시간에는 일제히 찬미를 불렀습니다. 배는 시시각각으로 물에 잠기고 물결은 갑판에 덮힐 때까지 저들은 손을 쳐들고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 살아생전 슬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앞에 끝날 심판 당할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 갑니다

라고 이 노래를 부를 때, 한 사람도 얼굴에 공포와 수심이 없이 물에 가라 앉으면서도 도리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죽음의 때 위로가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지위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그들로 안식케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임종시에도 불러야 합니다.

1912년 파이텍스호라는 유명한 호화 여객선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이텍스호는 초호화 여객선이어서 그 배에는 정치인, 재계의 인물 등 저명한 인사들이 승선하여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다 가운데에서 거센 풍랑을 만나 파선하게 되었습니다. 선장의 지휘하에 어린 아이와 부녀자부터 구명정에 옮겨 태웠으나 승객은 너무 많고 구명정은 모자라 태반의 승객들은 그냥 깨어진 배 위에서 우왕좌왕하며 구원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차차 바다 속으로 잠겨 감에 따라 승객들은 아우성을 치며 정신을 잃고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아비규환의 광태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에 마침 파이텍스호에 타고 연주여행을 떠난 악대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독실한 그 악대의 지휘자는 악단원들을 인솔하여 정복을 입히고는 선창에 도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악단이 연주하는 찬송가 소리는 바다 위를 퍼져 나갔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자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승객들은 그 음악소리에 자신들을 되찾고는 경건해져서 절서를 회복하였습니다.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찬송가 연주에 승객들은 조용해져서 찬송을 하거나 꿇어 앉아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는 차츰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요동치 아니하고 계속하여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악대는 마지막으로 새 찬송가 358장을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그 연주에 맞추어 합창하였습니다. 물속에 잠겨어가는 배위에서 연주되는 그 장엄한 코러스는 하늘과 바다를 가득 메우는 것이었습니다.

♪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일 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부를 때, 배는 드디어 완전히 침몰하였습니다.

그러나 승객 누구의 얼굴에도 불안이나 공포, 고통이나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쁘고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머금은채 물속에 잠겨갔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정적 위에는 언제까지나 찬송의 여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히 13: 15)

사람들은 어릴 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 때에 캄캄한 골목길을 지나노라면 겁이 나게 되는데, 이 때에 대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노래도 어려울 때 부르는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찬송을 안부릅니까.

군에서 부르는 군가는 사기를 돋우고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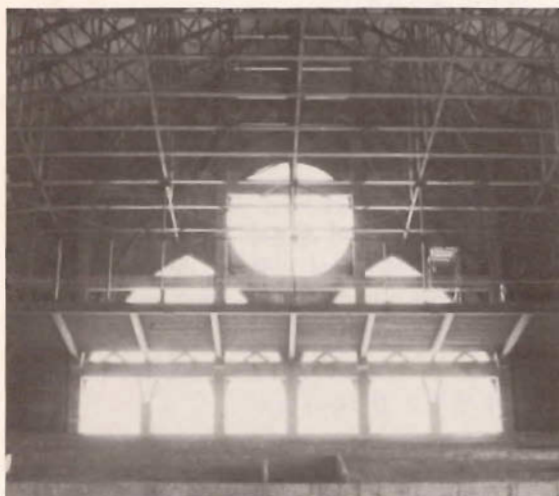
찬송가는 신령한 노래 즉, 영가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노래입니다.

예수님도 찬송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찬송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찬송을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생활에서 찬송이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신자의 가정에서는 하루에 두번 이상 찬송 소리가 알나오면 그 가정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찬송을 힘차게 불러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르게 봅니다. 물위있는 가정으로 봐 줍니다.

『이 성근 목사의 허락을 받아서』에베소서 사경(하 권) P 503~514 전체한 것임』

새성전 이사에 즈음하여



III. 새성전건축이 완성되었을 때의 인적구성과 효율적인 관리

전호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새성전의 건축물, 구조물, 냉난방, 전기설비, 음향 비데오, 영상설비 등을 어떻게 하면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몇 가지를 들어 소개해 보면 첫째로, 기능직에 대한 인원구성의 최소한 인원수를 소개하고 둘째로, 인사관리 요령을 주관적인 의미에서 논하겠으며, 셋째로, 새성전에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이런 내용을 살펴볼까 한다.

첫째로, 인원구성에 대하여 최소한의 인적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를 직종별로 보면

1. 영선기술자(건축기사)1명

영선기술자는 교회 전반에 걸쳐서 대소의 하자 사항이나 새로 계획하는 시설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공하는 역할을 한다.

영선기사 아래로 목공1명 조수1명을 교회의 의자나 가구등을 수선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한다.

2. 전기기술자(강전에 한함)

수전설비관리 3명 중 기사1명, 기능공2명이 변전실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리고 조명및 동력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기사1명, 기능공2명이 있어야 되며 수전설비나 조명및 동력관리등은 상당한 훈련을 거쳐 서로 교대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발전기기술자 1명과 특수조명기사 2명, 이 특수조명은 수선및 보수를 위주로 해야 하며 관리도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조명에 대한 프로그래밍(특수조명운전)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 통신(전화, 인터폰)기사1명, 전체적으로 기사가 4명, 기능공이 6명이 필요하게 된다.

3. 영상부분및 음향부분의 기술자

영상부분은 영상기부분, 비디오부분, 이를 보조하는 특수조명부분, 영사를 하는데 필요한 음향등, 네 가지 조건이 맞아야 좋은 영상을 구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는 본당 중2층 양쪽 측면에 비디오 카메라기사 2명 중2층 중심부 카메라기사 1명, 강대부분, 성가대부분, 신자석정면을 담당하는 카메라기사 1명과, 조정실 내부에 영상효과 담당기사 1명, 특수조명 담당기사 1명, 음향담당 1명, 영상프로듀서(P. D)가 1명이 필요하다고 보여 중강당 부분에도 각 부서를 담당하는 기술자가 1명씩은 있어야 하는데 중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 본당을 담당하는 기사를 활용하겠으나 만일 본당의 예배와 중강당의 행사가 중복될 경우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음향부분은 본당 전체를 조정하는 조정테이블(앰프와 믹사조정) 녹음과 기타 효과를 말한다. 음향부분에 최소한의 기술자 배정은 본사 믹사담당(조정기사)1명, 녹음담당 1명, 중강당의 음향조정과 녹음담당 1명, 스튜디오의 음향조정과 녹음담당 1명, 교육관, 선교센터, 소집회실, 기도실, 성가대실등에 담당 음향기사 2명등 영상부분 7명, 음향부분 6명이 최소한 필요하다. 여기에 영상부분에만 보더라도 비디오나 기타의 편집하는 기술자와 복사 혹은 시청각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자, 선교나 교육의 교재를 제작하는 기술자, 동시번역실에서 필요

로 하는 번역사와 기사등의 배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4. 설비부분

설비부분은 새성전의 동력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연료를 이용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물공급 기타 위생시설을 합한 부분이다.

관리인원은 시설관리기사(설비의 보수 신설등의 설계및 예산편성을 주관하는 기사)1명, 기관관리운영기사(보일러실 책임자)1명, 시설보수 기능공 3명, 시설보수 기능공은 화장실의 고장수리, 급수, 배수의 고장수리 기타 기계등의 하자 신설할 수 있는 기술자를 말한다. 기관공 6명(보일러 운전 3명, 각실별로 나누어져 있는 AHU공조기관리 2명, 중앙감시반 1명)의 기술자들을 서로 나누어서 교대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설비부분과 소방설비부분을 총관리하는 소방설비, 기계설비기술 면허소지자 1명이 필요하다.

5. 전화교환실

전화교환실이 200회선 정도라 하면 적어도 교환수 4명이 필요하며 2인 교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6. 경비실에 필요한 인원

경비실에는 교회 사찰집사외에 경비와 안내를 하는 인원이 필요하며 주간에 필요한 인원과 야간에 필요한 인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주간에 필요한 인원은 수위실 2개소에 4명, 본당에 2명, 교육관에 2명, 선교센터에 2명을 합하여 주간에 10명, 야간 10명 모두 20명을 필요로 하는데 이 인원으로도 지하주차장도 관리해야 된다.

위에서 소개한 각 부분별로 최소한으로 배정한 인원수를 직종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기술 기능직 인원

직종	분류	책임자	기사	기능공	계
영선			1	2 ^(목공1) 2 ^(조공1)	3
전기		1	4	6	11
설비		1	2	9	12
음향 및 영상		1	7	6	14
교환				4	4
관리총책임자		1			1
계		4	14	27	45

둘째로, 인사관리 요령을 주관적으로 간단히 논해 보고자 한다.

인사관리는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는 것과 적은 인원을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사관리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훈련하여 개인이나 그룹이 최대한의 능력을 향상시켜 그 결과 기업과 직장에 결정적인 경쟁상의 우위와 적정한 성과를 부여하는 방법의 기준이다.

인사관리를 연구하고 분석하는데는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최근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서 경영관리의 많은 기법이 구사되어 경영효율의 향상을 추구하여 왔다. 예를 들면 판매예측, 생산계획 퍼트씨피엠(perfCPM) 공정계획의 공정분석, 시간적 분석, 직무별분석, 외주능력분석등 수많은 관리기법이 보급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대기업이나 유수의 많은 회사들이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기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방법은 시정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인사관리 담당자는 시기와 필요에 따라 각 직장의 장이 비전문적으로 인사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바람직한 것은 전문가로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나 직장이 장이 될 수는 있겠으나 비전문화 되면 직업관리나 품질관리, 시간관리, 인사관리등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기 쉽다. 그래서 근래에 독일에서는 노동생리학, 노동심리학을 포함하는 노동과학이, 미국에서는 생산심리학, 안전공학, 산업후생학이 연구되었으며, 영국에서도 산업심리학 피로연구등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관리가 방법과학으로서 발전되었다.

옛날에는 노예를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기계의 부분품같이 이용했지만 산업혁명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서서히 인사관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용이 되어왔다.

즉, 옛날에는 노예를 부릴 때 한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노예가 일을 잘못할 때는 때리고 강제로 일을 시켜서도 일이 안되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적재적소를 기계의 일부분같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시험하고 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똑똑한 인재를 키워낸다.

현대의 인사관리에는 첫째로, 행동과학 즉, 인간의 행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산업심리적 접근방법을 취하며 기술적(descriptive)인 규범을 통하여 관리하는 연구를 말하며, 둘째는 모티베이션(Motivation) 인간의 욕구를 이용한 것으로 인간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며, 그것을 저해하면 좌절하여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욕구는 개인의 행동을 일으키게 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매슬로우란 사람은 욕구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 ① 자기실현의 욕구(잠재능력 실현의 욕구)
- ② 존경의 욕구(자존심 승인, 자유, 독립의 욕구)
- ③ 친애와 용인의 욕구(집단소속과 유행을 쫓는 욕구)
- ④ 안전 안정의 욕구(생명 생활의 자기보존 욕구)
- ⑤ 생리적 욕구(의, 식, 주, 성 등의 기본적 욕구)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관리자는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생각하여 종업원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충실하게 인식함으로써 생리적욕구와 안전 이상의 것을 충족시키도록 직장환경을 정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매슬로우씨의 이론이다. 세째로 리더십의 이론이다. 모티베이션 이론은 일하는 사람의 인간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논한 것이지만, 개인이 모인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개인의 자의적인 행동만을 다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직의 인적운영을 논하는 것이 리더십의 문제이다. 요컨대 리더십은 선천적인 능력이거나 어떠한 구체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라 리더의 행동, 멤버의 행동 및 이들을 둘러싼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리더십은 교육이나 훈련개발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연구 추진되고 있다.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하여 인사관리를 연구하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켜 가면서 관리운영할 수 있을까를 쉬지 않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째로, 새성전에 이사를 하면 많은 기술자와 사무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는 위에서 서술한 여러 문제들과는 달라서 모두가 일하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여러가지로 말씀해 주고있다.

즉 「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요 6 : 27)과 같이 교회안에서 일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니만큼, 순종해야 함은 물론이겠으나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관리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겠다.

관리요령은 하나님 교회이니만큼 더욱 조심해야 되겠으며 피관리인(즉 직원)은 교회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듯 해야되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 : 8) 말씀과 같이 봉사하며 직원들 상호간애와 윗 사람에게는 「너희가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벧전 1 : 22)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틀림없으리라 본다.

감독을 맡은 사람들은 둘째항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첫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아야(잠 3 : 7) 함은 물론 사랑으로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감독하고 다스려야 되며 둘째, 피관리자로 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겠으며 세째, 의사결정에 반드시 동참해야 하고 네째, 목표달성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며 다섯째로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감독자나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관리에는 무조건적인 강제성이나, 하급자에게 불평이 많으면 ‘그만두면 될 것이 아니냐’는 식의 관리는 실패의 원인을 탄생시킬 수 밖에 없다. 그것은 발전 없는 계속적인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한 관리는 첫째로 적재적소의 배치, 둘째로 신앙으로 지도하고 믿음을 키워서 피관리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점점 더 발전하는 인재를 만드는 것, 세째로 감독자나 관리자가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가가 중요한 일이다. 네째로 피관리자가 최대한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일, 다섯째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를 관리자는 충분히 인식하여 관리자나 피관리자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일치단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다.

최 환집사

만일 당신의 한 날이 영광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웃으십시오

폭풍우 뒤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나무가지는 부러지고
그러나 그 역수같은 비와
소용돌이 치는 바람 속의
시련하에서도
휘어지는 다른 나무가지들
폭풍우는 어느 나무가
가장 굳센지를 골라낸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같은 방법으로
보이지 않은 시련과
우리가 매일 접하도록 한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얼마나 부러지며
얼마나 활까가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을 고쳐주며
또는 그것을 돕는
우리의 인생관인 것이다.

〈하이렌 레티로〉



◎ 지나치게 커져버린 “나”

「가이드 포스트」에서

교회의 사무직이란 때로 달갑지 않은 직업이다. 가끔 그런 일이 있는 법이지만, 일이 잘못되면 언제나 사무직원이 원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이 제대로 돌아갈 때엔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혹은 그렇게 보이는 듯 한다.

아주 미칠지경이었던 어떤 날, 나는 특히 나 자신에 대해 서러운 느낌이 들었다. 내가 원지에 타이프를 치고 있는데 타이프기에서 활자 하나가 튕겨져 날아갔다. “또 오늘 밤엔 집에 늦게 가게 되겠군.”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나는 그 활자를 찾아 집어 들었다. 그것은 영어의 “I”자, 즉 “나”를 뜻하는 활자였다. 그 때

나는 곧 느꼈다. 나는 지금 내 손에 하나의 훌륭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려 함이 아니었던가. 지금 이 조그마한 활자는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나’자(字)를 너무 강하게 쳐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십시오
보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받는 보상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계시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사 6:1)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1.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본 때는 언제입니까

『웃시야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사 6:1)

○웃시야는 어떤 임금입니까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1.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본 때는 언제입니까

『웃시야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사 6:1)

웃시야 임금님이 죽던 해였습니다.

○웃시야는 어떤 임금입니까

(1) 웃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공한 임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웃시야로 그 부친 아마사로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대하 26:1) 웃시야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라

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대하 26:45)

웃시야왕은 유대 나라 제10대 왕입니다. 그는 불과 16세에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40, 50, 60살 된 자들이고 백성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식으로 생각해도 16살 난 웃시야가 안다면 얼마나 알겠으며, 경험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6세의 어린 웃시야 왕이 등극을 할 때에 모든 백성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 그것이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나?”

다 머리를 숙여서 나이 어린 왕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웃시야는 나이는 비록 어린 임금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웃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리고, 나는 몸이 약하고, 나는 지식이 없고, 나는 경험이 없고 어리석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므로 강하신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웃시야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웃시야

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① 웃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가. 약자를 돌보았습니다.

“약자를 마음 놓고 살게 해라” 이것이 웃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국책의 첫째 방침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짐 지고 다니는 무식하고 세력이 없어 천대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운동을 했습니다. 나라의 관리들이 농민 한 사람에게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억울하게 했던 일이 발견되면 용서가 없었습니다. 약자 농민들을 불러주니 농민들이 너무 감사해서 죽을 각오로 일하니, 온 나라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약자를 억울하게 할 사람이 없어지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깨끗하게 했으니, 온 나라 백성은 태평세월을 만났게 되었습니다.

나. 젊은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사하고 일하는 중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훈련을 시켰습니다. 전쟁 때가 아니고 평안할 때인데도 때때로 젊은이들을 소집하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놀며 못된 짓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몸이 건강해지고 백성이 혼란을 통하여 정신무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이 어리다고 댄 나라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쳐들어올지 모르니 마음 놓으면 안된다. 혼란을 잘해 줘야 한다!”(대하 26:13)

이래서 그 수하에 군사가 수십만 명이 준비되었습니다.

다. 무기를 연구하였습니다.

어떻게 무기를 만들어야 하느냐? 웃시야는 대하 26:15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법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발하게 하였으니」 이 같이 무기를 연구하여 지금의 대포 같이 돌을 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멀리 원수가 올 때 기계만 누르면 그 돌이 원수의 진에 가 떨어져서 박살을 내고 맙니다. 그런 기계를 연구하여 만들었습니다.

② 웃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 국내적으로 권위가 당당합니다

이렇게 웃시야 임금의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니 온 나라 백성이 왕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 어려도 아이구 말도 말아 조금 잘못했다간 가차 없다” 그래서 웃시야 왕은 국내적으로 권위가 당당합니다.

나. 이웃나라에도 웃시야 왕의 권위가 이웃나라에도 떨치고 뻗어 나갑니다

“야! 유대왕 웃시야는 명군이야. 유대왕 웃시야를 건드려다 가는 뼈다귀도 못 남야” 이리하여 주변의 각 나라가 자진하여 선물을 가져오고 조공을 바칩니다. 이래서 웃시야가 16살로 왕이 되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는 동안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

렸습니다.

(2) 웃시야 왕은 나중에는 스스로 교만하여 실패한 임금입니다

「저가 감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대하 26:16)

웃시야는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이 나빠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과 주위 각 나라가 칭찬을 하고 선물을 많이 가져오니까 웃시야는 천지에 자기처럼 잘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바로 잡고 충흥시킨 영웅이야! 나는 억울한 사람의 실오라기 하나도 빼앗은 적이 없이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나라를 잘 다스린 성군이고 다른 나라까지 명령할 수 있는 실력자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는 것’ 그것은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고 임금인 나도 절대로 못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만 해보면 세상에서 내가 다 해보는 건데, 다른 임금이야 여자 관계도 문란하고 죄도 많이 짓고 가난한 자, 약자를 억울하게 하고 세력 높은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도 우물쭈물 해줬으니까 제사를 못하겠지만 나야 뭐 흠이 있어야지. 난 이렇게 흠이 없고 깨끗한데 딱 그저 한번 제사를 주관해보면 좋겠구만!”

웃시야 왕은 쓸데 없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근신했으면 좋았을텐데 나이 60이 넘으면서 웃시야는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공자요, 깨끗한 임금인데 제사장

가운데도 나만 못하게 얼마나 많다고...그런데 내가 왜 제사를 못하나. 이거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은 제사장을 제쳐놓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와의 제사장 중 용기있는 자 80명을 데리고 황급히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웃시야 왕을 막았습니다.

“웃시야 임금님,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전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라”

그러나 웃시야 왕은 이 충고를 듣지 않고 자신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발하였습니다.

“뭐야. 이 나라에서 나를 막을 자가 누구냐!”

웃시야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나 웃시야 왕을 당장에 문둥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웃시야 왕은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별궁에 죄수처럼 갇히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같이 웃시야 왕의 마지막은 실패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실패하던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도, 성공하던 사람이 실패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성공해야지 죽기 이전에는 성공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2.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제 웃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맥이 풀리고 마음이 동요합니다.

“아! 저렇게 훌륭하시던 임금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죽

었으니 이제 원수들이 쳐들어 오면 어쩌나?”

백성은 겁이나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50여년 동안이나 보살피고 인도하던 웃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 백성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면서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보게 된 계시가 바로 본 이사야 6장의 환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을니다.

그러면 웃시야 왕이 죽어서 울고 낙심하는 이사야에게 지극히 높은 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목시를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 합시다)

세상 임금은 범죄하고 죽었으나
영원한 임금 나 여호와와는 여기 있다!

이것을 보여 주십니다. 인간 중에 훌륭한 임금이 죽었느냐?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원한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중현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20년 30년 목회를 잘 하다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사면을 하고 떠난 교회로 가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교회는 야단났지만 문 닫게 됐구만’하고 꿈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시어 왕

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이사야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 보시니

웃시야 왕이 죽었느냐? 낙심하지 마라!

웃시야 왕이 죽었느냐? 원수를 겁내지 마라!

웃시야 왕이 죽었느냐? 원수와 타협하지 마라!

웃시야 왕이 죽었느냐? 죄를 범하지 마라!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를 두려워하며 조심만 하면 웃시야 왕이 없어도 너희가 이전보다 열배 백배나 더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낙심하고 울며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하늘문이 열리어 높은 보좌에 앉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승만 할아버지 이 기봉 선생님이 자기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된다고 하면서 부정 선거까지 하면서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줄 알았으나 그분들이 쫓겨나고 세상을 떠난 후에 이 나라가 그전만 못하지 않고 더 잘 됐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던 훌륭한 분이 없어지고 내가 신뢰하던 위대한 분이 나를 떠날 때에 낙심하기 쉽고 원수와 타협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망하고 맙니다. 그런 분이 없던지 없던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훌륭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떠날지라도 낙심하거나 죄와 원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매어 달리면 이전보다 백배나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보여주시는 진리입니다.

□ 시간안내

에베소서 사경

—원리적인 교회론—

칼빈은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서 에베소서를 가장 사랑하였고 그래서인지 그의 생애에 에베소서를 4번이나 강해하였다.

이상한 것은 피히테가 철학자 칸트의 모든 저서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평가했던 칸트의 「항구 평화론」은 실상 인즉 이 에베소서를 대본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에베소서의 특색은 존·메카이가 ‘에베소서는 바울신학의

클라이막스요 거기에는 기독교 진리의 진수가 말씀되어 있다’고 말한대로 성경에서 제일로 꼽아야 할 책으로서 종합적인 성경 지식을 전하는 책이다.

본서는 저자가 원리적인 교회론을 상하권에 강해와 주석의 특징을 잘 조화시켜서 저술 사경집으로서, 모든 교역자는 물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할 내용을 평이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저술한 책이다.

이 성근 목사저

■ 마태출판사 · 70미색모조 4·6판 반양 345면 상·하 각권 3,500원

십 계 명 강 해

〈제 8·9·10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애굽기 20:15~17〉

· 제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오늘날과 같이 도적질의 기준이 매우 애매해진 사회에서 이 8계명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옛날에는 단순히 남의 것을 가져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었으나 창조질서와 가치관과 소유권이 흔들리고 변질되어진 이 시대에서는 개인의 소유권 문제가 애매해지고 따라서 이 계명의 탈선 기준도 매우 모호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도적질을 세 부류로 나눈다.

① 남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남의 소유를 강탈하거나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을 도적이라고 한다. 그것은 재산 뿐 아니라 남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도 역시 도적이라고 본다.

② 남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적질을 하는 단체의 일원으로써, 도적질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돕는 사람을 가려켜서 도적이라고 부른다.

③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명기 24장 14절은 투기업자의 폭리나 기업주나 어느 기업체의 저임금정책이 바로 도적질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미가서 6장 4절은 유해식품업자나 폭리의 의료인이나 거짓 상품 선전자나 거짓 자을을 사용하는 자가 도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도적질은 실제로 남을 해롭게 하는 동시에 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행위이며, 권리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기 보다는 적

자생존의 원리를 생활철학으로 삼아 살기 위한 투쟁 또는 경쟁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도적질하는 일들이 흔히 있다.

성경에 의한 가르침을 살펴보면

첫째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것도, 국가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자기 것인양 생각하게 될 때, 오류가 생겨진다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신 예화 「달란트 비유」에서 두 가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이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용한 사람과 남용하거나 오용한 사람에 대한 예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자기 책임을 감당치 못하는 것은 제 8계명을 범한 것이다.

둘째로, 제 8계명은 용서와 보상의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다.

성도들이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이 용서는 항상 회개와 보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죄를 죽이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 회개는 과거 지은 죄의 배배나 갚겠다고 한 식개오와 같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적질한 물건이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방관자로써 책임을 못 다한 것도 도적질한 죄가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대로 모른체하고 지나갔다고 한 것은, 신명기 22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과 같으니 하나님 앞에서 역시 도적질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불한당 만난 북한의 내 동포를 위해 방관자가 되거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거나, 전도나 구제에 게을리 하거나 방관자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게으른 종의 우를 범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제 8계명을 범한 죄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책임을 다 못한 방관자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도적질을 하기보다는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 되고, 황금마차를 타기보다는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을 정직하게 살도록 못 하였다면 그 신앙은 무가치한 것이요, 진정한 신앙은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고로 오늘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 제 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인류 역사상 죄악이 침투한 최초의 경로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교만한 죄와, 그리고 사탄이 선악을 알게하는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고 한 거짓말이 최초의 죄가 된다. 고로 죄의 뿌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는 아담의 「교만」과 먹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이 이 세상의 최초의 죄악이요 그 뿌리가 된 것이다.

사탄의 말처럼 당장은 죽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런고로 제 9계명이 가르치는 교훈의 배경에는 최초의 거짓 증거자가 사탄임을 기억해함으로,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속아서 더 이상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 9계명의 배경이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마귀는 본래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써 예수님 밖에서 하는 말과 행위는 모두 거짓이요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이다. 어

떻게 보면 예수님없이도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정직하게 보이지만, 진리 밖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언행은 곧 사탄의 일이요 거짓의 앞잡이라는 것이다.

십계명 가운데 제 3계명과 제 9계명의 공통점은 허로 짓는 죄를 말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말하는 것 정도는 습관화되어 있고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처럼 알고 있으니 그것이 슬픈 일이다.

사업상 할 수 없어서 거짓말한다고 하고, 사교상 할 수 없어서 거짓말한다고 하며, 메스컴조차도 짧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회를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한다. 이제 이 거짓말은 교회에까지도 침투하여 다반사로 성행하고 있다.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거짓 증거」라는 단어의 뜻이 달리 표현되어 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의 뜻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고, 비진리를 따라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신명기 5장 20절의 말씀의 뜻은 성실하지 못한 말은 하지 말라 또는 천박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다. 즉, 진실이 결여된 언어, 자기가 한 말에 성실치 못한 경우를 경고하는 말씀이다.

·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으로 지체가 지체를 속이는 것은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우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원한」 또는 「악의」에 의해서 이다.

잠언 26장 2절은 사람의 입술에 맹렬한 불이 일어나는 이유는 원수를 갚기 위한 태도라는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거짓말」 혹은 「거짓 행위」에 대해서 헬라어는 서너 가지로 말하고 있다.

①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이다 ; 이 말은 「중상」 「모략」이라는 뜻이 있다.

중상은 허로 하는 살인 행위이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거짓 선전하므로써,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것이다. 즉 허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디아볼로스」라고 한다. 또 모략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라스페미아」라는 단어이다 ;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인간을 모욕하는 자」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거짓말 하는 것이요 거짓 증거라는 것이다.

③ 「카탈라비아」라는 단어이다 ; 이 말은 「협담자」

라는 말이다.

앞에서 간사하게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하고 욕하고 헐뜯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우는,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는 죄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뱀에게 핑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민수기 32장 23절은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어 놓을지라도 그 죄가 오히려 우리를 찾아낸다는 말씀이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다.

세번째로 「부주의」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다 (시 116 : 11).

확실한 지식의 결여나 불확실한 것에 대한 증거나 함부로 말함으로 거짓 증거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이다. 고로 우리가 적은 것을 알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말하되 확실한 것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번째로, 「자랑」을 지나치게 하다가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간증이라는 이름 아래 신앙간증이 아니라 자기를 지나치게 추켜세우다 보면 남을 헐뜯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자랑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섯번째, 자기의 「이권」 때문에 거짓이 있게 된다.

우리가 보는 신문이나 방송 광고 중에 특히 약광고를 보면 세상에 병들어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과대선전들도 있다.

진리에 대해서도, 그 진리를 왜곡하거나 과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범죄행위도 있다.

여섯번째는, 바로 「침묵의 거짓말」이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침묵도 거짓을 긍정하고 거짓을 조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다. 침묵이 금이라는 말도 있으나 침묵이 종종 거짓을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이다.

잘못을 알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순교자는 침묵을 지킨 사람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나의 이웃 또는 친분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반치 않기 위해서, 그 이웃이 수백만의 이웃을 속여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으로 침묵을 계속하는 것은 곧 나로 남을 속이는 일에 동참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고로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거짓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적해야 하고 말해야 할 곳에서 지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는 「버어리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곱번째, 「부분적 권리」만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면 사흘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의 진의를 잘 몰랐으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고 그들이 말했으나 그들은 부분적 진리만을 알았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오늘 교회 안에도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부분적 진리 또는 잘못된 진리를 고집하는데서 생겨지는 오류이다. 부분적인 것으로 온전한 것을 대치시킬 때 거기에는 종종 실수가 일어난다. 남을 속이려면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것이 된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정직하며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그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덟번째, 하나님께 무엇인가 감추려고 또는 원치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공기도에서 「진실로 구하옵나니...」라는 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진실을 가장한 거짓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는 교회짓는 일에 별 관심이 없고, 건축 헌금에도 인색하던 사람이 공기도하라면 하나님 앞에서 성전 빨리 짓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온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아나니아를 향하여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고 성령을 속이는 자라고 지적 책망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 바친바 되었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장이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제 9계명이 가르치는 교훈은

① 위증과 거짓말 또는 중상하는 사람, 거짓 소문

을 퍼뜨리는 일, 과장된 말, 허위 진술, 아첨하는 말, 험담, 얼버무리는 말, 남을 헐뜯는 일, 말의 뜻을 악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동기와 표현 방법에서는 형태와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제 9계명을 범한 죄가 되는 것이다.

② 위와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난 부위에 앉는 파리처럼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거짓말에는 다리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거짓말은 다리가 없으므로 다른 다리 즉 다른 거짓말의 부축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약 3:2).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제 9계명의 가장 귀한 교훈의 말씀이다.

③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오히려 일의 문제만 만드나면 특히 허로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삼손이 여우의 꼬리에 단 불처럼, 온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씀이다.

시편 5편 6절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했다(잠 12:22, 시105:5, 계 21:8, 계 22:15).

그러므로 먼저 철저한 회개를 하되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공적인 것은 공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 입술을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도록 말씀에 주의하되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 제 10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제 1계명에서 제 9계명까지는 인간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소위 행동 강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제 10계명은 내적 생각을, 즉 인간의 마음 강령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교훈인 것이다.

큰 여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가 작은 아이성에서 무섭게 패배한 원인은 그들의 군대의 힘이 약함 때문도, 전략의 허점 때문도 아니요, 오직 「아간」이라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탐심이 저지른 도적질 때문이었다는 생생한 사실은 탐심에 대한 우리의 경계를 일깨워 주고 있는 교훈이다.

오늘 이 시대는 탐심을 가진 자를 죄악을 범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탐심을 가진 자로 일몰한 생활자 또는 미래를 위한 준비자라는 미명 아래서 칭찬과 권면을 보내는 시대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탐심이란 히브리어로 「엣사」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문자적으로는 ‘부정직하게 얻은 것’ 즉 불의한 이득을 말한다.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서 이해해 보면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소유하려는 마음 가짐을 탐심이라고 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먹어서는 안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그것이 곧 탐욕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최초의 경위였다. 고로 탐심과 도적질과 거짓말은 세 쌍둥이와 같은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탐심에 대해 생각해 보면,

첫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중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다.

오늘날에는 물질 때문에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넘기는 현대판 파우스트가 많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 10계명은 이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계명이다. 이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되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뿌리가 뽑혀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① 물질에 욕심을 품으면 정직을 잃게 된다.

즉 법적으로는 옳게 살았을지라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게 사는 것이다. 민수기 22장 23절에는 발람이 마귀의 탐심의 미끼에 걸려 거짓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어떤 유혹이나 위협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힘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② 물질에 탐심을 품으면 이기심에 빠져 남의 것을 탈취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망각한다.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즉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탐심이요, 힘 없는 백성의 등가죽을 벗겨먹는 권력자가 있다면 그것이 곧 탐심자라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재산도 명예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남을 착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③ 물질에 대한 탐심은 투기 행위에서도 나타난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 판단을 돈에 둔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황금에 눈이 어두워져, 자녀를 불신앙의 가정과 혼인시키는 것, 이것도 일종의 물물교환과도 같은 태도인 것이다.

이같은 탐욕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 뿐 아니라 믿음과 영력을 파괴케 하며 자기확장과 물질적 자원의 증가를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투기나 모리배 역할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척하나 그 사이에 다른 형제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결국 투기행위는 탐심의 열매이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울리고 이웃의 가슴을 치게하는 행위인 것이다.

두번째,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은 사람의 위치나 신분에 대한 탐심이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이하나 누가복음 22장 24절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 다툼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은 이웃의 형제가 굶주린다거나 병이 들었다 하면 동정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는 많으나 자기보다 성공하거나 앞서 간다고 할 때에는 그를 축하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이 곧 세상이다 즉 세상의 신분에 대한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치 못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분에서 자기가 빠지면 교회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는 것도 탐심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의 자세에 있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 속에는 탐심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너희는 있는 바를 죽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결국 처해 있는 자리에서 죽한 줄 알아야 한다.

세번째는, 사람에 대한 탐심이 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자에 대하여 음욕을 품는 마음을 금하라고 말씀하셨다(마 5:27).

다윗이 우리야를 죽인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다. 이렇듯 사람을 탐하므로 비극을 가져온다.

네번째, 탐심은 우상숭배이다(골 3:5).

인간의 모든 요구와 생의 쫓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고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탐심의 근거는 어떤 것을 소유하므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배고픈 사람, 천대받는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 거기서 해방을 받는 것을 행복으로 알면 잘못이다.

모든 순교자는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가졌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환란 속에서도 찬양을 했으며 특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이 곧 우상숭배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것을 갖다 주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탐심의 심정을 끝 수가 없다는 말씀이다.

신문에 났었던 것인데 교회에 빨갱이가 들어와 권사가 되어 간첩 노릇을 했다고 하며, 그리고 통일교 교주 문 선명이 사람을 매수하여 교회에 들어가 열심히 충성하여 장로가 된 뒤 그 교회를 뒤집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니 교회마다 이런 악한 자들이 탐욕으로 스며든 것을 알아야 한다. 현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집사라고 해서 교회가 치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는 했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불행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선 나 자신은 피조물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된다. 고로 「용서받은 죄인」은 남을 저주하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귀함도 알고 남도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아는고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며 남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열번째 계명은 앞의 아홉 계명의 결론의 말씀이 된다.

- ①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므로 제 1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요,
- ② 자기 중심적 삶이 탐심이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섬기는 것이 되므로 제 2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요,
- ③ 탐심은 거짓을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의 성호에 욕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제 3계명을 파괴하는 것이요,
- ④ 탐심은 거룩한 안식일에도 하나님보다 세속적

- ①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므로 제 1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요
 - ② 자기 중심적 삶이 탐심이니, 하나님 보다 자신을 더 섬기는 것이 되므로 제 2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요
 - ③ 탐심은 거짓을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의 성호에 욕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므로 제 3계명을 파괴하는 것이요.
 - ④ 탐심은 거룩한 안식일에도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제 4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요.
 - ⑤ 탐심은 모두 권세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권세까지 비웃고 경멸하게 되므로 제 5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요.
 - ⑥ 탐심은 살인 행위까지 불러 오며
 - ⑦ 탐심은 간음 행위까지 하게 하며
 - ⑧ 탐심은 도적질까지 하게 하며
 - ⑨ 탐심은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든다.
- 고로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 5계명으로부터 제 10계명까지의 이웃에 대한 말씀은 결국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1) 성도는 이웃을 향하여 행동으로 이웃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2) 성도는 거짓, 모략, 저주 등의 말로 이웃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3) 성도는 생각으로도 이웃을 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이 모든 말씀(제 10계명)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간 6회에 걸쳐 연재되었던 이 증언목사님의 십계명 강해는, 1982년 10월 3일 주일 1부예배에서 제 1계명을 시작하여 12월 5일까지 10주간에 걸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전제 또는 발췌하여 게재한 것이었다. 이 증언목사님은 현재, 아세아연합신학원 교수, 할렐루야교회 당회장으로서 시무하시며, 본 증언교회 주일 1부예배 설교 담당자이다.

교사알기

○○년 ○월 ○일

“애들아! 우리도 새성전 건축헌금 하자. 오늘부터 말이야 1주일동안 엄마가 해 주시는 간식만 먹고 용돈은 꼭꼭 숨겨 두었다가 건축헌금 하면 어때?”

“오-케이”

“그럼 이번 한 주간동안 모아 두었다가 주일 아침 올때 가져오는 거다”

과연 우리 개구장자들이 얼마나 기억을 하고, 또 참아낼까?

○○년 ○월 ○일

“야! 너희들 핑장하구나. 어쩔 잊어버리

지도 않았구나”

“그럼요~오”

선생님의 감탄과 칭찬에 S의 어깨가 엉덩이와 함께 30cm 정도는 들쭉들쭉인다.

“선생님! 사먹구 싶어서요. 혼났어요”

S가 200원을 내밀며 하는 말이다. “그래” 알만해.

우리 반이 모두 12명인데 건축헌금 총액수가 자그만치 일천원 하고도 이백육십원이다.

군침을 삼켜 가면서 참고 또 참은 작은 마음들이 흰 봉투에 담겨졌더니 마치 봉투가 풍선이 되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다음 주일엔 나의 사랑하는 개구장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애들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던 아이하고 너희들하고 좀 비슷하다. 그치?”

오도세태(誤導世態)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오도(誤導)에 대해 익숙해 있는 탓인가? 아니면 분별력있고 객관성있는 느낌(feeling)을 느낄 줄 아는 사고의 부족 때문일까?

도적은 도적으로 볼 줄 알고, 공감대는 공감대로서 느낄 줄 아는 느낌(feeling)의 부족이 있지만 매스컴들의 올바른 객관성있는 느낌(이것은 직감이나 추측이 아니다)의 부족에서 오는 오도에서 기인된 것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도적 조 세형을 의도인양 인식되게끔 한 것도 그러하다. 이것은 부의 축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 심리에서 나온 것이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르는 관습적 느낌 때문이기도 하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이가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자족하는 습관과 의식과 느낌을 갖기를 말씀하였다.

이러한 오도세태는 요즈음 기독교 쪽으로 눈을 돌린듯 하다. 요즈음 일간지 등에 자주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신문에서 말하는 내용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성되어 오던 점도 있었으나 교회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바른 느낌과 인식의 부족에서 온 것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빈약한 습성과 아울러 앞에서 말한 보복심리에 기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면에서는 구령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그 화살을 잡자기 교회에 돌린 것은 무슨 이유인가? 기사의 빈곤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의 진정한 사명의식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불교와 유교의 사찰화에 이은 의도적인 화살이었는가? 무엇인가 냄새나는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넘겨 짚어보는 것은 필자의 착각일까?

어쨌거나 그들은 개교회의 수용력을 모른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의 민주적 여론에 의해서 형성되고 커져가는 생리를 인식 못하고 있다.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크고, 그들이 넓으면 모이는 이도 많은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수용력 즉 응집력은 국가의 응집력이기도 하다는 것을 모른다. 모든 교회는 '초가삼간이라도 있어야 비를 피하며 웅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교회의 응

집력을 분산시키려는 음모는 사탄의 음모이며 공산주의가 원하는 바이다. 모이는 것을 폐하는 나라마다 힘을 잃게 된다. 교회의 응집력은 공산주의에 대한 응집력이다. 여기에는 정신적인 면은 물론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신실한 응집력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찌하던지 공산치하에 있는 내 동포 내 형제를 구하려는 복음사역의 하나로써 북한선교회를 조직하여 여러가지로 심혈을 기울여 온 것과 이러한 목표를 교회에 세운 것도 매스컴은 벗겨 나가서 이야기만 하고 있다. 횡적인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종적인 힘도 필요한 것이다. 해외선교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선교는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외에도 구제비 그리고 구치소, 소년원, 부두연 압선교, 윤락가전도 군전도 등 수많은 곳에 사람과 물질이 투여되고 있으며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 등에 지원사업 등 여러가지로 투여되고 있으며 문서 선교의 일익도 담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제반 사항들은 많은 사람과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는 뒤에서 공급하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대도시의 대교회의 필요가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다.

신문은 이러한 측면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의 편벽된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또 교제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민주주의라는 의미의 인식도 잘 안된 그들의 좁은 시야에서 나온 이야기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상의 의미 즉 복음 확산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성장하는 교회에 이같은 진통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안목도 필요한 것이다.

한편 교회가 사회에 대한 선지자적 역할을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일들로 표면화되어서 스스로 서지 못했을 때, 사회가 교회에 대한 지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회 안에서 또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잘한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다고 맹세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만한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교회는 기업이 아니므로 성도가 모여서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고 각 지체에 대한 주님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

빠하실만한 일로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몸의 일부가 아프다고 해서 수술해서 베어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싸매고 치료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세태가 그저 물어뜯기 좋아하는 심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바도 아니며 모든 민주 시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 세대는 홀로 유아독존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이든 모두가 공존하는 세대이다.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고 계실 주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로서 공존할 때에 참된 자유와 평화는 가능한 것이다.

88올림픽이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그저 입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국력과 대기업 회장단들의 막후수고도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 속의 한국의 이미지 속에, 800만에 가까운 기독교도가 있고 그래서 대교회와 대재정의 흐름이 있기로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보복심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도세태- 이것은 비겁한 욕망이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선 있어서는 안될 들보인 것이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는 일화천금 노린 가룟유다의 목 매달려 죽을 전주곡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이는 재판하는 빌라도의 재판받을 비명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은 개선이 같은 유대 민족의 자멸선언이었으나

“그 뜻과 일이 사람에게서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능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노라”

이는 바리새 교법사 가말리엘을 통한 천주만대의 지혜로운 말씀이니라.

○천국에 홍수?

영덕군에 소재한 벽지의 ○○교회의 ㅈ강도사님
께서 전해온 교회 형편을 보면 장년10명, 주교20명,

학생회10명이며 사례비는 교회에서 5만원 시찰회 노회에서 합해서 5만원 도합 10만원을 받아서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고 계시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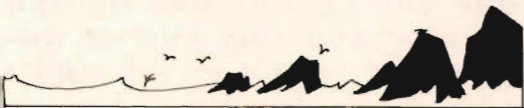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사역에 전심전력하시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월간 충현도 약2천여권이 이런 교회들에 발송되고 있으니, 모르는 곳을 다 합치면 몇 만 아니 몇 십만 교역자들이 될지 모른다. 이러한 목회자들 모두가, 후일에 저 천국에서 일시에 주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때 아마 그 때는 눈물로 홍수를 이룰 것이다. 그 분들은 주님을 만나보니 너무 기뻐서 눈물을 펄펄 쏟을 것이고 주님도 반갑고 기뻐서 같이 눈물 흘리실터이니 천국은 내 눈물 내 눈물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지 않겠는가?

한편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의 최저 생활비를 생각할 때, 대도시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는 연간 서너차례씩 농어촌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숙식제공을 하며 수련회를 갖는다는가 농어촌 평신도 초청훈련등을 자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히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여 왔었다. 그러나 보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단 본부나 재정보조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가 초교파적으로 발족되어 지원하여 농어촌교회 및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이 생활에 너무 어려움 당하는 일없이 복회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가 성년의 교회로써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될 때 또 다시 주님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가슴마다 뜨겁게 적셔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고백

일찌기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전하지 못해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복음화 시키지 못한 죄가 한이 없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피 공로 깨닫지 못하고 싸우는 현대인간들에게 주의 복음진리를 언행으로 못 가르친 죄 죽어 마땅합니다. 하물며 골육상살 일 삼고 무력정복 꿈꾸는 현실에 대해 무능력·무신·무애한 죄 일백번 고쳐 죽어 마땅합니다.



참 교사

내가 유년부 교사이던 시절이었다.
주일날, 날씨는 몹시 무더운 날.
주일학교 성경암송대회가 있었다.
우리반 학생 두 명이 일·이등을 모두 차지했
다.

나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했다.
나는 그 아이 둘을 더위도 식힐 겸,
두 아이에 대한 나의 기쁨도 표현할겸,
교회 앞에 있는 가게로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
림 두 개를 사서 하나씩 주며 계속 칭찬을 해
주었다.

○ ○ ○
그 다음 주일날 아침
일등한 주인공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 학부형을 만나자 반가움에 또 그 아이 칭
찬을 했다.
그런데 그 학부형은 나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지난 주에 우리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
셨다고요”

“예”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는 눈물을 글썽인채로
고민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예...”
아차 하는 순간,
“주일날 산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니, 성수주일을
못한 것이 아니냐고 울먹이며 말하기에”
“...”

등골에 식은 땀이 흘렀다.
“말해 주었지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내가 너
무 사랑스럽고 기뻐서, 아마 주일인 것을 잠
간 잊으셨기 때문일꺼야”
“...”

낮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러니 내가 주일인 줄 알고도 거절 못하고
먹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음에 조심하면
된다’하고 말해 주었지요”

부드럽게 속삭여 주었는데도 내 귀에는 천둥
번개와 같이 들렸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지 못한채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제가 그
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어찌 그것이 선생님 본의였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너무 과념치 마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그 길로 유년부실 한 구석에 엎드려 이
마를 바닥에 대고 회개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성수주일을
못하게 한 죄를...

그 학부형은 두어 달 전에, 신학 졸업반이신
부군을 따라서 개척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사모님
이 되셨다.

그 전도사님이나 사모님, 두 분은 어느 한 쪽
도 기울어짐이 없는 진실하고 참된 신앙의 인격
자들이다.

만약되지 못한 내게도, 그 교회의 놀라운 성
장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

두 분 내외와 자녀들에게 또한 그 교회 위에 성
령님의 충만하심과 보호가 항상 같이 하시길 기
도드린다.

-Lim, O. M-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가
라’ 하시니라(요 5:8)

정통신학과 사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사상이 성경의 고등비평과 성경의 유오(有誤)를 역설하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신성, 십자가 대속, 재림 그리고 내세 상벌을 부정하는데서 시작하여, 『세대의 변화와 시대적 변화를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적당주의적인 고등수법을 펼쳐왔고, 또 연막적선을 펴서 두 얼굴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신의 죽음(死神)」의 신학, 세속화 신학, 우주 신학, 혁명의 신학들이 모두 같은 부류에 속한다.

존스(I·T·Jones)는 사신신학(死神神學 God is dead theology)이 낳은 사동아(四童兒)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1) 하나님 신앙을 떠난 기독교
- 2) 종교적 체험이 없는 기독교
- 3) 개인의 회개가 없는 기독교
- 4) 성경이 없는 기독교

그래서 프랜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는 현대인의 절망은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주의 때문이며, 오늘의 신학적 파산은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 신을 외면한데 있음을 주장한다. 특히, 그는

①기독교 신앙은 인간 전체 생활과 관련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만 목적을 둔 피안주의나 개인의 영적 성장만 강조하는 경건주의가 아니라 신앙이 전체생활속에 파고드는 전인적(全人的) 생활로 보며

②성경의 절대권위를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신학의 파산은 자기의 철학을 전제하고 거기에 신학적 용어로 그 철학 위에 옷을 입혀온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제 할 일은 성경의 절대권위를 믿고 성경이 제시하는 전제 아래 신학을 성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양신학교 설립자인 마포삼열(S. A. Moffet) 목사의 회년 기념연설 가운데 ‘나는 사도 바울이 결심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

자가 복음 이외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는 이 한 마디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일찌기 쉐드(Shedd)는 ‘정통신학이야말로 사도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하수처럼 전제 교회의 밑바닥을 적시어 왔다’고 지적하여 상기시켜 주고 있다.



마포삼열 목사

□ 그루터기 상치 한단에

상치장사를 하는 김집사는 주일에도 장사를 하였다. 주일에도 오후까지 장사를 하느라고 저녁에배시간에 늦게 참석하였다. 예배당에 앉자마자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께서 김집사에게 공기도를 시켰다.

상치장사하다가 급히 온 김집사 「하나님 아버지! 상치 한단에 300원입니다……」

갑자기 교회안이 조용해졌다. 김집사는 벌떡 일어나서 교회문을 뛰쳐 나가서는 그냥 달렸다. 어둑어둑한 북한산 중턱에 까지 달려 왔다.

김집사는 털석 앞도렸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돈에 눈이 멀어서 주일까지 뵈하더니, 이제 하나님께 까지 상치장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흑흑……」

그후, 김집사는 가장 겸손한 집사요, 성수주일은 물론이요 봉사를 가장 성실히 하는 칭찬받는 집사가 되었다.

찬송가의 갈길

최 모세

먼저 불교의 전통문화의 소산인 국악의 5음계와 기독교문화의 소산인 (교회)8선법은 서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이 두 음계가 지닌 역사적 배경이나 형태는 각각 다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발생하는 음악적 요소에 따른 종교적 이념과 사상적 표현마저도 전혀 다른 것이다. 이 두 음계는 서로 다른 요소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미각이나 이에 따른 악곡상의 결과마저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 기존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하나는 불교적 소산에 잇다른 결과의 상징이라고 하겠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독교와 연관된 것으로 보아야 지당할 것이다. 이같이 각 종교마다의 고유한 진리와 교리에 지향된 성향을 따라서 그들의 문화를 계승교자 정성을 쏟고 있다. 따라서 불교적 문화를 기독교 속에 도입하여 주체성 없는 기독교회로 유도시키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유감천만한 일이라 하겠다.

불교적 5음계적 찬송을 지향하는 어느 회합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6월 기독교계의 신문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반대적 논리나 의견이 제시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도 중대한 시점에 놓여있는 현 시점에서 믿을만한 화합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작곡가의 대부분이 5음계적 노래 보다 서양적인 노래를 잘 작곡하고 있다는 어느 보도내용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5음계 보다는 7음계를, 7음계 보다는 12음계를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던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이겠고, 둘째는 작곡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연구해야 할 단계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세째는 기독교 문화적 음악세계 속에서 살아 오면서, 찬송에 깊이 젖어진 자기 자신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5음계 작곡은 잘하면서, 기독교적 노래는 잘못 작곡하 시내'라는 편견을 준다면 잘못하는 것일까?

한국적 5음계의 노래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보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으로 생각

된다.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의 가락은 우리들 생활 속에 파고 들어 우리들의 기분을 흥청거리게 하였다. 이것은 불교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노래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음악이라고 일컫고, 영혼에 도움을 주는 영적인 신령한 노래를 우리는 종교음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에 와서 어떤 이들은 종교음악과 사회음악을 구별없이 모두 똑같다 논리를 내세우기도 한다.

음악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근래에 연구발표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저질적인 음악 특히 노래들이 미치는 영향은 동물에게는 야비한 성격을 형성시켜 주고, 식물의 경우에는 그 생태와 성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같이 젖소의 경우, 고차원적인 음악을 들려주면 양질의 우유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5음계의 불교적인 노래가 기독교에 침투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기독교회 내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기독교는 5음계보다 더 우수하고 그 바탕이 넓은 7음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주체성 있는 기독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교문화가 자랑스런 기독교 문화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 기독교회는 우리의 것을 잘 보존하고 연구하여 빛나는 기독교 문화를 꽃 피우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 파이프오르간연주가 최모세는 독일의 「아-켄」 「본」 「쾰른」 등의 대학에서 14년간 종교음악 (오르간 연주·작곡·지휘) 전공(1965~1979) 하였다.

나는 어떤 문재이건 주님 안에서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휘튼 '83대회』의 성격과 충현

그간 주보와 월간충현의 소식란을 통하여 휘튼대회의 성격과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성장한 교회로써 본 교회가 파악되었고, 당회장님께서 이 대회에 초청받아 성공사례연구를 위한 강연을 하시게 되었다는 내용은 여러차례 나왔으나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 개략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1. 먼저 「휘튼 '83대회」가 열리고 있는 휘튼과 휘튼대학을 소개드리자면

휘튼은 시카고 서부 교외에 있는 150여년전에 시작된 작은 도시로써, 휘튼대학과 휘튼선언으로 특히 알려지게 된 곳이다. 휘튼대학은 19세기 자유주의 세력이 득세하여 신학교들이 점령되고 좌경화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세워진 복음적인 성서대학의 하나로써, 조직신학자로 유명한 티센 교수를 배출하였고, 세계교회협의회(W. C. C.)에 대항하여 복음적인 선교운동에도 앞장서서 초교파적인 개혁주의의 입장을 천명하고 유명한 「휘튼선언」을 기초하고 서명하는 등, 복음적인 교회들과 초교파 선교단체들 간의 연합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여 온 곳이다.

본 휘튼 '83대회는 이와같은 맥락 속에서 열리는 대회로써, 특히 교회와 선교를 주제로 하여 열리며, 대학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세계복음주의협의회(W. E. F.)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고 있다.

II. 금번 대회의 개요

1. 주제 : 교회의 특성과 선교
2. 주제성구 :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마 16 : 13)
3. 대회기간 : 1983. 6. 20~7. 1
4. 장소 : 미국 일리노이주 휘튼(휘튼대학)
5. 대회의 목적과 분과운영

교회가 지역환경 속에서, 선교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사역에 있어서 갱신되도록 초청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회를 3개 분과로 나누어, 연구된 내용을 발표하고 보고하고 평가하며, 함께 토론하여, 그 성과를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하고, 나아가 세계교회에 공헌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 ① 제 1분과 : 지역환경 속에서의 교회의 특성과 선교(사명)
- ② 제 2분과 : 선교의 신개척지에서의 교회의 특성과 선교(사명)
- ③ 제 3분과 :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회의 특성과 선교(사명)

즉 제1분과에서는 : 지역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신약에서와 같이 지역교회중의 역할과 사역에 강조점을 두고 지역교회들과 교회병존단체를 포함한 보편적인 교회가, 이미 복음이 침투된 주민들을 끝까지 제자화하는데 서로 협력하도록 하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의 발견과 개선 및 빠른 실현을 가져오도록, 현존 교회들의 모습과 사역이 어떻게 그 지역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연구하여 교훈을 삼고 성경적인 원리의 실재를 검토하는 것이다.

제2분과에서는 : 선교의 새로운 개척지에서, 새로운 환경여건 속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개척하는 교회의 모습을 연구하며,

제3분과에서는 : 교회를 구성하는 지역교회와 지역교회 외곽의 병존단체들이 어떻게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인간의 요구에 부응해야며 협력할 것인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6. 총회 기초강연과 성경연구

앞서와 같은 분과운영을 위한 전제로서, 대회의 총회에서는 기초강연과 성경 연구가 있게 되는데 총회 강연제목 및 성경연구 제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초강연

- i) 교회의 성격 : 폴란드 구티에레즈 목사(해방신학의 구티에레즈가 아님)
- ii)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 피터 쿽즈믹 박사
- iii) 교회와 세계복음화사업 : 위런 웹스터 박사
- iv) 교회와 사회적 책임 : 토론토 아데예모 박사

② 성경연구

- i) 구약의 교회 : 윌슨 초우 박사
- ii) 예루살렘의 교회 : 테오돌 윌리엄스 박사
- iii) 로마의 교회 : 발디르 스에르 나겔 박사
- iv) 고린도의 교회

III. 제1분과의 강연내용

본 교회가 참가하고 있는 제1분과는 다시 6개의 분야로 나누어

- ① 부흥하고 있는 교회
- ② 도시 지역의 교회
- ③ 중산층 교외의 교회
- ④ 순회교역자가 돌보는 교회
- ⑤ 비제도적인 교회
- ⑥ 억압받고 있는 교회

라는 제목을 갖고 각 2편의 대표적 사례발표를 하도록 하였는데 당회장님은 제3분야인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교회로서 충현교회의 성장사례를 발표하셨다(6월 24일 10:45~12:15). 한국교회의 중추를 이루는 개신교,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회, 그 중에서도 단일 목회자에 의해 지금까지 일관된 성장과정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를 대표할만한 성장교회로서 충현교회를 소개발표한 것이다. 당회장님의 강연문 발표에 이어서 이종운 박사의 보고자로서의 보충설명, 노봉린 박사의 평가자로서의 사례발표 내용의 평가 순서가 있었다.

제1분과에서도 기초강연이 있는데

- ① 지역교회의 동일시
- ② 지역교회의 영향력 확대
- ③ 지역교회와 교회 병존단체와의 관계
- ④ 기독교적 제자육성에 관계된 문제들
- ⑤ 핏박받는 교회

가 그것이며 주제강연인의 12개의 사례연구 발표 외에도 세계각국에서 (1) 도시속의 단독 목회자에 의한 교회, (2) 복수 목회자에 의한 교회, (3) 도시 중심의 교회들, (4) 공업단지 속의 교회들, (5) 거대 교회들, (6) 가정 교회들, (7) 부족 교회들, (8) 개종자들의 교회, (9) 핏박속의 교회들, (10) 부흥하는 교회들, 이라는 큰 제목아래 100편의 단편 사례연구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IV. 「회튼'83 대회」의 준비과정상 특징

이번 대회 본부에서는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대륙별로 지역특성에 적응하도록 11개 지역센타를 운영하고 자문위원회를 두었으며 총진행을 위해 강사진을 두었으나 제반준비사무는 3개분과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조치하여, 제1분과는 인도의 뉴델리에, 제2분과는 영국의 런던에, 제3분과는 미국 워싱턴 주 씨애틀에 두었다.

참가자의 선택과 대회참가비 문제해결도 각분과에서 해결토록 하였고, 각 분과별 사례연구 발표자나 강연자 및 기초연설 담당자들은 자체 결정하도록 하였다.

본대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제3세계와 미개발지역 참가자들을 위하여 영어 외에 스페인어, 불어 등 5개국어에 의한 통역과 찬송과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으며, 설교자들은 자국어로 설교하도록 권고하고 각종행사와 축제에 있어서도 자국어에 의한 소개와 찬양의 지도를 원하고 있다. 또한 대회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모든 강연문과 사례연구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참가하도록 권고함으로 실질적인 내용의 토의시간을 늘리고, 새벽기도회, 성경연구, 점심시간과 지역 축제시간에 최대한의 배려를 두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성도의 교제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V. 이것이 충현 장로교회이다

마지막으로 당회장님의 사례연구 발표와 병행하여 본교회에서는 “이것이 충현 장로교회이다”(This is Chung-Hyeon Presbyterian Church)라는 제목의 소책자와 비디오 필름을 제작하여 한국교회와 함께 본교회를 소개하는 순서를 준비하였다. 한국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 발전의 소문은 전세계에 알려져 있으나, 한국 교회의 부흥하는 모습과 그 성장사를 알려줄 마땅한 책자나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는 권고를 듣고 개교회의 자기 홍보나 선전광고의 차원을 떠나 이러한 절실한 요구에 부응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기 때문에 시작된 자료였다. 단기간 내에 제작하여 어려움이 많았으나 한국교회와 충현교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강연문과 보고문과 소책자 및 비디오 필름 제작 등을 위하여 여러모로 귀한 시간과 정열을 바쳐 수고해준 많은 분들의 헌신이 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었다. 그리고 비디오 제작에는 이름도 알리지 않은 성도들의 헌금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번에 얻은 여러가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은 앞으로 펼쳐질 새성전시대를 맞이할 본교회에 크게 유익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산골짜기의 장락교회

-자립하기까지-

은 동네에 호랑불이 반짝이던 14년 전 조그마한 시골학교 교실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1968년 9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정 사현 집사님 내외분이 부임해 오심으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미사리 마을은 교인은 한 사람도 없었고, 장락산에 산재를 드리는 등 어둡고 미신이 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1969년 3월부터 개척교회 준비가 교장 사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월 13일 처음으로 이웃 교회의 정 관주목사님을 모시고 목요일밤 학교 교실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담임 교역자 :

최 봉철 전도사

8월 중순엔 충현교회의 하기전도단을 청원하여 천 성덕전도사와 6인에 의해 일주일간을 새벽, 낮, 밤 계속해서 유년과 장년의 부흥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69년 12월 중순에 정 관주목사님을 충현교회의 매월 보조 2만원의 사례를 제공받아 정식 담임목사로 모시어 건물없는 교회는 날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건축을 하여야겠다는 교인들의 뜨거운 기도는 정 사현집사님의 끈기와 집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기도 마을에 들어오지 않았고 차도 다니지 않았던 산골짜기! 오로지 교통수단으로는 연락선(뚝딱선)만이 오고가던 당시에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 사현집사님은 충현교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 여러 날을 김 창인목사님을 만나뵈고 청원하였습니다.

1970년 6월 1일 충현교회가 마침내 허락을 내려 40만 원의 건축예산을 허락하므로 70년 7월 15일 밤, 백 성룡목사님을 모시고 정초예배를 드리므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지 130평에 건평은 25.5평의 적연과 스테이지 봉의 건물을 짓기에는 수많은 노력과 눈물어린 기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선 물질의 어려움으로 정 사현집사님은 158처의 교회를 다니면서 건축현금을 얻기 위해 수고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동네 학부형의 핍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자 많은 자재를 차판도 아닌 배로 운반한다는 것은 여간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날라다 준 벽돌을 강가에서 교회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연 1,655명이라는 인원이 필요했으며 일꾼이 모자라 동네 사람들에게 벽돌 한장 나르는데 1원씩이라는 품값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낮으로만도 부족하여 야간작업에 29명이 참여하여 야간 작업에만도 연 94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충현교회에서 7십만원과 장락교회 건축현금 63,110원, 각교회및 개인보조 488,828 원이라는 건축현금으로 그해 12월 10일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제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로 담임목사님은 정 길성목사님, 정 기용전도사님을 지나 1979년 4월 11일에 현 목회자 최 봉철전도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교회가 쇠퇴하여 출석교인들이 8명밖에 없었고 재정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후로 교회에 앰프시설도 하였으며 81년 3월 2일에는 충현교회의 5십만원의 보조금과 여러 곳에서 협조해 주심으로 경운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구입한 경운기로 교회용 논둑을 쌓았으며 교육

관 수리및 교회 마당 시멘트공사등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립이라는 큰 과제가 장락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 아니될 수가 없었습니다. 온 교회와 목회자가 하나가 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교인들 가정에서 십일조 생활하는 가정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늘어났으며 3년 전 처음 저희가 부임해 오던 당시엔 3만원이라는 사례비를 지급받았는데 83년도에는 15만원의 사례비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을 마친 경운기를 자립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매매하여 140만원짜리 큰 소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립의 준비가 되자 작년 12월 21일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충현교회의 품을 떠나는 자립예배를 충현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은혜 중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임마 품을 떠나는 어린이아이마냥 우리 온 교인들은 허전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들을 항상 보살펴 주던 충현교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 속에서 장락교회는 자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립을 하게 되자 하나님의 많은 사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 장락교회는 강을 끼고 있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골짜, 골짜기에 수많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의 제단이 없었고, 몇채 되지 않는 가옥들이기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두 시간씩을 걸어서 성전에 찾아오는 성도, 배를 타고오는 성도, 산을 넘어오는 성도, 여러 곳에서 길이 험함을 마다하지 않고 풀숲을 헤치면서 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게 이곳의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북한강 주변의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처소에 기도처를 마련하고 빠른 배를 구입하여 교인들이 주일이면 장락제단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꼭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면서 목회자와 온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골인지라 교회의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은 천국일꾼을 많이 양성하여 정말 뜨거운 사명감으로 골짜기의 어린

생명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축산단지 구성도 하고자 하며, 마을의 유치부 어린이들을 위하여 선교원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주의 제단에서 청년회가 좀더 부흥되기를 바라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청년들의 기도소리가, 또한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이 꼭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면서 자립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

죄란 아주 무서운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을 막는 아주 무서운 장애물로써, 모든 자비, 능력 및 은혜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를 연결하는 길을 막아버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려거든 죄를 뱉어버리라

-R. A 토레이

—잠이 안올 때—

주님 잠이 오지 않는 시간 때문에
당신께 감사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에게
또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요
만물이 고요할 때면
서둘 필요도 없고 꼭 해야 할 일도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낮에 해야 할 일에 쫓기고
소란한 소리가 들려올 때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그들의 음성을 듣노라고
당신의 음성을 놓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고요한 밤시간이 되면
어떤 소리나, 어떤 광경이나, 어떤 영혼도
당신 속에서 얻는 마음의 축복을
맛아가지는 못한답니다

〈엘리노 히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5)

생명의 말씀이 담긴 카세트테이프 안내

“은 가족을 위한 강단”
“직장의 성경교실”

현재보급중인 카세트테이프 안내

□ 설 교

1. 김창인 목사
2. 김희보 목사
3. 윤영탁 목사
4. 신성중 목사
5. 이성근 목사
6. 이종운 목사

외 다수 부목사의 설교

□ 성경통신강좌

1. 로마서 (신성중 목사)
2. 욥기 (김희보 목사)
3. 호세아 (김희보 목사)
4. 학개 · 말리기 (김희보 목사)
5. 이사야 53장 (윤영탁 목사)
6. 신구약개설 (이종운 목사)

□ 특강 및 신학강좌

목회 전반에 걸친 특강 및 신학강좌 테이프 다수

*특별히 1963년도 김창인 목사님의 설교 6편을 선정하여 아름다운 케이스에 담아 선물용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값 2,500원)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와 군문에서

현대인은 누구나 시간에 쫓기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잠도 자지않고
식사를 건너뛰고 기를 수야 없지요.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당신의 영혼의 건강은,
우리 이웃의 영혼의 건강은
육체의 건강보다 훨씬 중요 하답니다.

아무리 바쁘신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권합니다.

충현교회 성경연구원에서
진도용으로 보급하고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설교집과
성경통신강좌를 이용해 보세요.

보급가격 : 60분 테이프 케이스입 개당 500원

90분 테이프 케이스입 개당 700원

구입문의나 신청은 : 100 - 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3. 274-2171~4 충현성경연구원

충현교회성경연구원

마땅히 행할 길을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키려면, 먼저 부모가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은 그 길을 가 본 사람만이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 바로 그 분을 아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는 것이다. 그 분을 아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된다. 로마서 1장2절에 『이 복음은...』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복음의 본체이신 이 분이, 마땅히 행할 길을 열어 놓으신 분이다.

이 길에 들어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화나 이야기 정도로 가볍고 간단하게 들려주어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넘겨 버리게 되어 마땅한 길을 벗어나 그 영혼이 병들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언제나 경건하게 예를 갖추어 그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어려서부터 또는 처음 믿기 시작하는 때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모두 같은 길이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갈함 없는 충만함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어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가며, 목적지가 확실한 기차와 같이, 항상 약속된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버스편

• 매일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토요일제외)

• 매주 수요일에 배후 9시에 교회 앞에서 출발

• 차량운행코스 : 충현교회 → 신사동국민은행앞 → 영동시장 (대환투신) → 삼일자동차 (새성전앞) → 잠실네거리 → 송파 → 성남모란시장 (시외버스정류장) → 기도원.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주·이천방면 완행버스를 (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 하차〉하여 광주행 31번을 타고 〈광주에서 하차〉 광주에서 이천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 〈초월면사무소 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13472-2-4425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월간 충현은 성도 여러분의 교제의 광장이며 기쁜 소리를 나누는 벗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간 충현은 문을 넓게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의 글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말씀의 생활화』를 위한 논단, 제언, 간증 및 수상 등과

2. 『성도의 교제』를 위한 시, 수필, 풍트, 일기 그리고 미담가화 등입니다.

3. 혹 원고가 많이 밀려서 늦게 실리는 수도 있고, 편집상 선별되어 실리는 수도 있어야 하니, 이 점은 양지하시고 주 안에서 많은 참여와 권고 바랍니다.

원고마감 : 매달 15일 이내

원고매수 : 200자 15매 이내

보 낼 곳 : 월간충현편집실



해외 선교지·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인도네시아-서 만수 선교사

지난 6월13일 자당께서 소천하셔서 6월15일 발인예배를 부산에서 오 치용 목사님과 최 석주 장로님 및 실행위원들이 동참하시는 가운데 드렸고 장지까지 함께 다녀 오셨음.

서 선교사님은 동남아시아·애굽 및 유럽지역등을 선교업무 협의차 여행중 귀국하셔서 본부와도 업무보고 및 협의를 하심.

· 기도제목 ·

- 1) 금년 중에 5개의 전도 개척지를 더 추가 할 수 있도록
- 2) 현지 교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애굽-이 준교선교사

아랍어 원고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현지 설교를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

1) 애굽 복음주의 신학교를 방문 경건회 시간에 참석, 설교 후 신학생들을 위한 의료장학금을 전달함.

2) 카이로 한국 학교 주최, 어린이 및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 축복기도하고, 기류민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함.

3) 애굽에 나와 있는 대림산업 현장을 방문 현장 책임자 및 노무담당자를 만나 현장예배에 관해 협의함.

4) 카이로 시내의 파갈라 복음주의 교회에서 열린 애굽 복음주의 제93차 교단총회(나일대회)에서 참석하여 총대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으며 이제는 특별손님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정회원이라는 의미로 소개되었음.

· 기도제목 ·

- 1) 카이로 한인교회와 애굽선교를 위해

○벨지움-김 성완선교사

지난 5월에 부탁드린 기술연수진 가운데 두명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1) 각 성경공부반(구약·신약·더모데)과 주일학교가 계속 은혜중에 진행됨을 감사드립니다

2) 선교사역이 바빠짐에 따라 선교차량이 계속 주행함(7094km)

3) 6월16~18일 3일간 서독이 에센지방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실 예정임.

· 기도제목 ·

- 1) 예배당 구입 및 입양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하여
- 2) 에센지방에서 인도할 부흥사경회를 위하여
- 3) 김 선교사님의 모친 소천으로 남은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서독-육 호기선교사

83년 8월1일~5일 유럽교역자 주최, 유럽 연합수양회가 개최되며, 이 대회의 대회장으로 총지휘하실 예정임.

· 기도제목 ·

- 1) 한인교회의 부흥과 발전, 독일인 및 미군가족의 선교확장을 위하여

○칠레-유 재일 선교사

1) 칠레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 축하예배 및 운동회를 어린이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2) 고아원 원장 및 부원장과 고아원 내에 교회설립에 대한 의논을 함.

3) 선교부 산하 한인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교민산하 60세 이상의 어버이 13명을 초청, 상품 및 만찬을 나눔.

· 기도제목 ·

- 1) 선교사역에 동역한 원주민 선교사를 위하여

○파라과이-김 재창 선교사

큰 수해로 말미암은 13만명의 수재민에게 하나님

의 긍휼히 여기심과 빠른 복구가 있기를 기도하며 소식 보내심.

1) 800명이 참석한 부활절 새벽예배에 참석 축하하심

2) 원주민 선교, 10개 교회 교역자와 12명의 교인대표를 초청, 선교결연 감사예배를 인도 및 선교비 전달

3) 4월12일~5월4일 총 157세대를 심방함.

4) 교회 뒤의 땅 150평을 매매계약함. 교육관 겸 실내운동장으로 건축할 예정임

· 기도제목 ·

1) 교포사회의 복음화와 경교회복을 위하여

2) 13만 수재민을 위하여

○일본-유 병세 선교사

일본 서해안을 강타한 지진에서 무사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1) 5월1일 광천교회에서 예배, 입원한 환자 요시다씨(중풍으로 말 못하고 10년간 누워있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증거

2) 사모님께서 매주 수요일 부인성경반 인도하심

3) 광미교회에서 유 선교사님 사회, 요다선교사 설교로 예배드리

4) 광미교회 설립자 브라사선교사 부인이 암으로 소천하셨다는 소식 접수

· 기도제목 ·

1) 일본선교의 점진적인 발전과 확장

2) 일본인들의 마음이 넓게 열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선물을 주위 이웃과 함께 나누고 감사의 소식 전해오심.

1) 베나레스(힌두교 성지)의 성경학교에서 나흘간 선교의 소명과 선교지에 관한 강의함

2) 금년에는 카길지역에 이상기온으로 많은 눈사태로 50명 이상이 죽고 25일간 갇히기도 했으나 지금은 활동에 자유스러움

3) 기독교 사역자들의 총회를 위하여 계속 준비하고 있음(7월4~8일, 150명 참가예정)

· 기도제목 ·

1) 암스텔담의 선교대회를 통하여 선교사역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아르헨티나-백 성룡 선교사

그 동안 수고하시던 백 선교사님은 사정에 의하여 사면하시고 미국으로 가심.

· 기도제목 ·

1) 선교지 아르헨티나의 장래를 위하여

○미국

1. 라성지교회

1) 5월8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께 꽃을 달아드리고, 65세 이상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림

2) 5월21일 전교인(83명) 야외예배를 레저공원 에서 드림

· 기도제목 ·

1) 세계를 향한 총현교회의 전략적 선교기지로서의 역할이 충실하도록

2)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 한 마음 품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돕는 교회가 되도록

2. 윤 형철 목사: 6월10일 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 취득하심

3. 김 영휘 목사: 매주 오전 장년 성경공부 인도, 격주 설교 및 사회, 매주 삼일저녁 설교

4. 이 승근 목사(뉴욕): 주일 대예배는 최 화정 목사님과 교대 설교하심, 두 주일에 한번씩 모이는 구역예배 담당하심

○본부소식

김 주경 전도사님은 성지답사, 연구 및 선교지 순방을 목적으로한 여행단을 인솔하여 7월15, 6일경 출국, 8월초까지 약20일간 여행을 다녀오실 예정이며, 예루살렘 현지 한인교회의 형편과 김 전도사님 부재중에 수고하시는 권 혁승 전도사님을 만나 뵙고 앞으로의 선교사역 계획을 구체화 하실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1) 모든 선교사님 내외분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2) 모든 선교사님의 열력과 결실있는 선교사역이 되길 위하여

3) 선교지 교회들의 부흥과 그 곳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저는 어린이입니다

저는 어린이입니다.

모든 세상은 제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모든 세계는 제가 무엇이 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래는 저물에 걸려있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세계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당신의 세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고

저는 관심도 많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당신은 수중에 저의 운명을 쥐고 계십니다.

제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당신이 그 대부분을 결정하십니다.

비노니, 행복하게 될 것들을

제게 주시고

간구하오니, 제가 세계의 축복이 되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월간 충현 정정란』

금년도 1월호부터 6월호까지 발행된 본지의 내용 중에서 잘못 표기되었거나 잘못 편집 또는 오식(誤植)되었던 것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아울러 좋은 글월을 주신 필자에게 본의 아닌 누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오며, 또한 애독성도 여러분께도 널리 이해를 바라오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랍니다.

〈1월호〉

p8 좌하 9 단 : 나타났던 사실을→나타났던가 하는 사실을

p8 우상 15 단 : 준 것이거늘→준 것이어늘

p15 좌하 18 단 : 교사가 자질에만→교사의 자질에만

p15 좌하 15 단 : 끝의 「의를」→삭제

p16 좌하 10 단 : 두 차례 달에→두 달에

p28 좌하 1 단 : 피택장로→피택장로

p31 우상 9 단 : 해회→해외

p34 좌하 18 단 : 추구하기와→추구하기에

p39 제목 : 복음과 선교②-성경적 전도론-

→효과적인 심방②-심방에 대한

성경적인 소고

: 심방부 4지구 담당→1지구 담당

〈2월호〉

p7 좌상 27 단 : 하나의→한다니, 이러한

좌상 28 단 : 가운데→가운데서도

좌하 5 단 : 했는데 자기→했으며

좌하 4 단 : 남편이 저와 같이→과 함께

우상 13 단 : 울었노라고→울었습니다.

우하 16 단 : 제물→제단

p8 좌상 22 단 : 우상이라고 너희는→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p32 좌상 12 단 : 7월7일→2월7일

〈3월호〉

p3 상단 : 1983년 4월30일→1972년 4월30일 창간

p6 이름아래 : 총신대학원교수→총신대학원교수

p13 이름아래 : 장년부지도부→장년부 부지도

〈4월호〉

p2 권두언 21 단 : (램 47 : 10)→(램 48 : 10)

p19 사진설명 : 두 사진의 설명이 바뀌었음

p21 사진의 상하가 뒤집혀 있음

p23 이름아래 : 직장청소년부→직장청소년부
부지도

〈5월호〉

p6 이름아래 : 합동신학원교수 새가정 부지도

→합동신학원교수 새가정부 지도

뒷표지 9 단 : 습관→습관

〈6월호〉

p31 우하 2 단 : 자녀에게 그자녀에게 그 진실을
→자녀에게 그 진실을

p35 좌하 7 단 : 역활입니다.→역할이다.

교회 소식



□ 교육위원회

1) 교사위원회

교육위원회 산하의 16개 주일학교에서는 두어달에 걸쳐서 각 부서별 교사위원회를 갖았었다.

이 위로야유회에 대한 교사들의 직접적인 평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교사들과의 친교 및 같은 동료로서의 동료애를 서로 확인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다고 한다.

2) 교사단기수련회

16부 주일학교 여름계절학교를 앞두고 600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단기수련회가 6월28~30일(오후7시30분~9시)까지 본당에서 열렸었다.

정성구 목사님(총신대학장)을 모시고『전심전력하여 진보하자』(딤후 4:15)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었다.

(이 승미)

□ 전도위원회

1) 농어촌교역자 초청수련회

6월13일~17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특수적 상황에 있는 농어촌 교역자 초청수련회가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제9회로써, 이사야 8장6절의 말씀을 주제성구로 하여 새로운 사명감과 영적 부흥의 계기로 삼았다.

예상했던 인원을 넘어서 217분의 교역자가 참석하여, 낮에는 성경공부, 저녁에는 정문호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집회를 열었다. 또한 4분

의 목사님을 모셔서 특강을 듣기도 했는데, 옥한흠 목사님의『성경연구 및 자기개발』은 교역자와 평신도의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김원남 목사님의『심방의 필요성』등은 대단한 반응도를 보였다고 한다.

마지막 날에는 설문지를 통한 평가에서, 충현교회에 대한 바램도 들어 보았는데, 대체로 ‘소외된 농어촌 목회를 위해서 이처럼 도시교회가 더욱 힘을 써주기를 바라며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의 연결을 통하여 한국의 민족복음화에 활성화가 되었으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램이었다고 한다.

(이)

□ 북한선교회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고생하는 동포들과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 하며, 국내 전도 등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북한선교회 - 앞으로 있을 북한선교 전도특공대원 하계훈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계획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1) 6월6~10일까지 임원 및 대장, 부대장, 소대장 등을 중심으로 265명이 하계훈련을 사전준비하기 위하여『임시수련회』를 본 충현교회에서 오전10~오후4시까지 갖았었다.

2) 6월20일 유년부실에서 250명의 대원이 참석하여 철야기도회를 갖았었다.

3) 6월21~24일까지 15명의 대원이 강릉에 있는 강동교회를 중심으로 차량전도를 하였다. 저녁에는 매일 60여명이 집회에 참석하였다.

4) 앞으로 7월25~30일 사이에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훈련원에서 북한선교 전도특공대원들의 하계훈련이 있다.

훈련내용은 성경공부(신론)와 기도훈련, 금식훈련, 체력훈련, 복음설교훈련, 전도훈련 등으로 특공대원에 필요한 필수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강사는 김 창인 목사(북한 선교회 총재) 조 준상 목사(충현 기도원 지도) 김 오용 전도사, 이 상환 전도사, 이 세환(통일촌 자유회관 관장)

이번 훈련의 인원은 1, 200명으로 한정하여 받아들이고, 7월25일 본 교회당에서 모여서 오후1시에 출발하게 된다.

(김영호)

□ 제3회 교회성장세미나

6월2~3일 이틀에 걸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제1·2회 때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회성장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와 성장사례를 청취하였던 것과 달리, 본 교회에 몸을 담고 계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낀 문제점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적용면까지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발표된 주제는 ‘예배의 원리와 실제’, ‘교회교육’, ‘전도와 선교’, ‘교회조직’, ‘교회행정’, ‘교회문서’ 등 본 교회에 있어서의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며, 새성전으로 이전하기 전과 이전 후의 준비와 계획도 함께 다루었다.

이번 세미나에 준비하신 분들은, 준비위원장에게 최석주장로, 총무에 최봉호목사, 준비위원에 김원남목사, 장정일목사, 김창근목사, 허충욱목사, 오치용목사, 이양우목사, 조현명장로, 이웅선장로, 박승준장로 이었으며, 이번 세미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각 연구결과에 대한 적용에 의해서 후일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사려된다.

◎장년새신자부-성경퀴즈대회

6월19일 오후1시부터 새신자부실에서 새신자들의 성경지식 및 신앙성장을 위한 성경퀴즈대회를 열었다.

직접 참여한 인원은 15명.

○성경연구원-83년도 제1 학기 수료식

전교인 및 각각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위한 성경연구 학습의 금년도 제1학기 수료식이 7월3일 저녁 예배시간에 본당에서 있었다.

수료생은 모두 334명.

◎유년부-노년부위로회

유년부에서는 6월26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생활 하시는 노년부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극」을 베풀었다.

◎새신자부-특강

6월 26일 한양대 의대교수 김명애 박사를 모시고 여름철 피부관리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김영삼장로님 2부 대예배에 참석

7월3일 2부 대예배에 참석하여 교우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교계를 나누었다.



◎안나 여전도회-특강

안나 여전도회에서는 여름 철에 산만해지기 쉬운 「자녀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7월8일 오전 10시부터 본당에서 신경정신과 박사이신 박 종칠장로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다.

◎선교부-하기선교훈련예정

선교부에서는 세계선교를 향한 비전을 갖은 성도들을 위한 하기선교훈련을, 8월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간, 충남 서산군 소원면 파도리 「파도교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월간충현 취재기자

월간충현의 기사를 활성화하고 좀 더 심층취재하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본지의 취재기자로 봉사하기로 하여준 김 영호군(경희대 3학년)과 이 승미양(이화여대 2학년)에게 감사드리며, 잡자기 군에 입대하게된 김 영호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 닮으시」되시옵길 기도드리며 여러 성도님들과 각 부서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각종통계

1983. 6. 5 (매월 첫주 기준)

구분	남	여	계	총 새대수	
예배	I부	245	412	657	4,489
	II부	443	1,078	1,521	
	III부	407	764	1,171	
	IV부	308	515	723	
	V부	172	378	550	
배	주일 저녁	201	367	568	4,465
	삼일 저녁	146	348	494	
주일	어린이새신자부	23	37	60	10,706
	영아부	298	122	420	
	유치부	178	182	360	
	유년부	177	198	370	6,332
	초등부	253	222	475	
	중등부	198	175	373	
	고등부	130	176	306	1,073
	대학부	59	75	134	
	청년부	52	84	136	
	장년부	53	121	174	2,999
	새래부	31	58	89	
	장년부	42	339	381	
학	성도부	46	22	68	726
	선교부	17	54	71	
	새가정부	28	32	56	
	합계	3,428	5,979	9,407	2,475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 10: 24, 25)

6월의 교우동정

● 1지구

월십리2구역 김정운	신흥구역 유미철
마장구역 이상열	하왕 2구역 이건설
마장구역 이선미	홍익 1구역 홍숙녀
청량리구역 김용도	장안 1구역 김종태
가락 2구역 송영숙	면목3-1구역 김정숙
가락A구역 송영숙	면목 7구역 이금순
성내 1구역 유치환	천호 3구역 채갑병
진흥A구역 박형열	홍익 1구역 전예순
삼익A구역 호순희	목수 1구역 임정순
삼익A구역 김동예	신설구역 이종희
달십리1구역 이남철	

● 2지구

신당1-4구역 신필순	신당2-1구역 에유희
신당5-1구역 문종규	장위1-1구역 김성환
광희2-2구역 이준화	종암1-2구역 김성
광희2-2구역 이애순	쌍문 1구역 주원철
신당1-2구역 김동섭	신당3-1구역 권영수
신당1-2구역 김종현	쌍림 2구역 김길문
정위 3구역 정현예	미아 1구역 김종필
하계 구역 최윤선	수유3-1구역 이민진
하계 구역 장연준	광희1-3구역 유옥자
하계 구역 소동준	신당2-4구역 구완금
동선2, 3구역 이재안	쌍림 5구역 정말순
신당1-2구역 김종현	쌍림 5구역 최순자
광희2-2구역 김희성	쌍림 5구역 이우희
정릉 4구역 박형화	쌍림 5구역 홍원표
신당1-2구역 오종열	

● 3지구

장충 8구역 김금옥	장충10구역 백영자
충신구역 이순옥	창신 1구역 김영진
대조구역 강영환	창신 1구역 이종현

예장구역 노영희	주교 1구역 김혁연
갈현 1구역 김영순	물지 3구역 감희순
충신구역 권복림	

● 4지구

남인 1구역 김한수	충무5-1구역 김호재
오장 5구역 김상갑	인현1-1구역 문태석
영동 1구역 박태곤	청파 3구역 변동훈
양지 구역 신대희	성산 2구역 안재형
북정 6구역 정인옥	도곡 2구역 김매자
신월 2구역 김금선	진달래구역 이복경
인현2-2구역 김광희	개포3, 4구역 이명숙
충무 A구역 박은숙	진암 구역 연성남
개포3, 4구역 김진애	신월 1구역 이경옥
시흥 A구역 연규원	진암 1구역 김혜숙
충무4-3구역 박병기	

● 5지구

파천 1구역 진종대	설악 구역 백운홍
구반포구역 김주경	독산 1구역 임송자
주공 3구역 한창연	시흥 1구역 이순유
필동3-4구역 박형란	필동 1구역 이진환
고척 구역 이문환	남산 구역 노성진
보광 1구역 이정자	한신10구역 이명석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결혼

- 이재안군(봉천구역)과 양정임양(제 3성가대원, 안암1, 2구역)
- 이봉주군(호계구역)과 김정순양(북인천구역) 6월4일
- 이승욱군(청년부회원 통남구역)과 지경애양(김복례씨 딸, 종암구역) 6월7일
- 정명희양(고등부교사 정형성씨 김신도권사 딸) 6월7일
- 박현주군(최복인권사 아들)과 양은경양(제3성가대원 양명식씨 장성희집사딸) 6월10일
- 김성관군(김현식씨 김애순권사 4남) 6월21일
- 장대연군(종암구역) 7월2일
- 김현군(고등부교사 화곡구역) 7월2일

별세

- 송상욱원사(인도네시아 서만수선교사 모친) 6월13일
- 조마리아씨(이정자씨 모친 보광1구역) 6월15일

새로 나온 교우는

*...새로 나온 교우는 모두 장년새신자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와 함께 「학습」을 받게 됩니다.

「학습」을 받으신 사람은 세례부에 가서서 6개월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와 함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년새신자부에서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장년새신자부의 시간은 12시로, 새신자 부실에서 세례부는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8월의 행사

◇교회

5일/정기당회
12일/전체철야기도회

◇전도위원회

12일/여전도회 월례회
14일/남전도회 월례회
직장전도회 임원회
28일/전도위원회 월례회

◇교육위원회

1~4일/고등부 계절학교
2~6일/선교부 계절학교
4~6일/직청부 계절학교
15~17일/유치부 계절학교
22~23일/소망부 계절학교

◇자산관리위원회

21일/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심방위원회

7일/정기제작회
14일/권사회 임원회
28일/구역권찰회의

◇재정위원회

7일/재정위원회 월례회

◇건축위원회

28일/건축위원회 월례회

◇출판국

21일/출판국 월례회

편집후기

「월간 충현」에 대한 평가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그 많은 평 속에서 느껴져 오는 느낌(feeling)은 순수한 형세의 우애를 느끼게 하는 많은 조언도 있었고 방향 제시도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주장을 가지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나는 안 그랬었다 하는 식의 자기의 벽(겉 8:8)을 가져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주장, 그리고 자기변명은 하기 쉽다. 그러나 객관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느낌(feeling)을 바로 전하기란 쉽지 않다. 자기의 감정이 분노를 싣고 있다면 그 말이나 글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위장한(의도적) 말이나 글도 듣는 이로 하여금 거짓을 감지하게 하고 또 혐오감조차 느끼게 한다.

노인은 젊은이를 통해 순수를 배우고 젊은이는 노인을 통해 경험을 배우다 지나간 세대는 새로 오는 세대를 통해 평가를 받게 되고 또한 평가하던 세대도 어느 날 평가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잘난 척, 아는 척, 하는 척 할 것도 없다. 내 뒤에 오는 이는 나의 나이에 나의 시간에 이르면 나보다 더 나은 것을 알고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모든 일에 대해서와 인류의 발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요 내가 왜 했느냐와 문제인 것이다. 즉 나타난 글이나 말이나 일들에서가 아니요 그 글이나 말이나 일 속에 스며있는 동기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동기를 살피신다(마 5:37). 그러므로 순수한 사랑의 문이 사라진 벽 속에는 어두움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의 최종적인 평가는 주님의 불꽃같은 눈에 의해서 그리고 그 분의 의로우신 자물에 의해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원장/윤명식

편집위원/

이성근 이세열

윤영탁 안석렬

김영구 조현명

김차생 우기전

이훈 정은표

오태용 이형수

1983년 7·8월(합본)호

월간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3.7-8월호

제11권 제7호

통권 제112호

1972년 4월30일 창간

1983년 7월13일 인쇄

1983년 7월16일 발행

발행인/김창인

편집인/윤명식

주간/김영구

편집부장/문영화

발행처/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 02-274-217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36

전화 / 274-2171-2172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① 제9회 농어촌 교역자 초청 수련회('83.6.13~17)



④ 「새섬전 관광」 온 외국인 교우들



② 「농어촌 교역자 수련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 부서 중 「권사회」 여러분들)



⑤ 「교사수련회」('83.6.28~30)



③ 「굿은 일은 내가 먼저」
방석 카바를 팔래하는 여전도회원들



⑥ 라성총현교회 성도들

회 개

회개의 눈물은 성령의 단비이구요
참회의 한숨은 성령의 불 바람이구요
중생한 기도는 성령의 역사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는
세례요한의 광야의 첫 소리이구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시험 후 첫 말씀이구요
거듭난 베드로의 불 붙은 첫 설교입니다

회개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구요
회개없는 소망은 무너질 바벨탑이구요
회개없는 사랑은 내가 속는 외식이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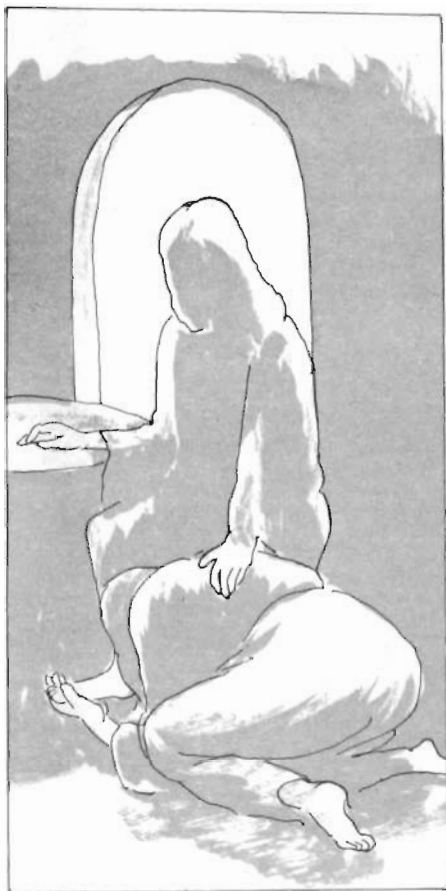
회개없는 천국건설은 낙원탈손 지옥이구요
회개안한 목자들은 양의탈손 이리떼구요
회개못한 양의우리는 교회탈손 로마병정이랍니다

회개없는 신학교는 이단학설 제조소이구요
회개안한 신학박사는 마귀나라 오열분자이구요
회개못한 신학생들은 무신론자 출발이랍니다

회개없는 교회설립은 마귀때 양성소이구요
회개안한 주일예배는 마귀악예 살찌구요
회개못한 조직행정은 마귀장난 역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세례요한은 옛날 사람이구요
사도 베드로는 자는자 오래이언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 음성이 고요히 들릴터인데
네 어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만 여느냐

믿음 믿음 믿음이려구먼
글쎄 회개없는 믿음은 가증한 심령이라니까요
소망 소망 소망이려구먼
글쎄 회개안한 소망은 무너질 바벨탑이라니까요
사랑 사랑 사랑이려구먼
글쎄 회개못한 사랑은 네가 속는 외식이라니까요



신령한 눈을 뜨고
거룩한 귀를 열고
차라리 병어리가 되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한숨을 쉬이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네 아직 깨달지 못하겠거든
골방으로 가거라
아라비아로 가거라
산 속으로 가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의 성령은 안 속으신다

순교자 : 산돌 손양원 목사